성도의 벗 2

1980

성도의 벗 2
1980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롬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고문
엠 러셀 밸라드 이세
렉스 디 피네가
휴 더블류 피녹크
찰즈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차 례

여호와를 섬기라……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1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데이비드 에이 웨튼…… 3
인생의 사업……스터얼링 더블류 실 장로…… 7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하는 번역…… 8
누구보다도 더 높이……매리온 디 행스 장로……10
나의 아들 곧 나의 친구……제이 엠 토드……14
질의응답……16
"노고"……호머 지 엘스워스……18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고함……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21
진리를 찾은 크레이그……로이스 스프룬트……22
두 친구……클라우디아 지이 레밍톤……24
심심풀이……28
친구를 위해서……스코트 스노우……29
고장난 택시를 밀어주던 날……제이콥 디오거……30
낯선 사람뿐인 버스안에서……엘리스 리친스……32
계명을 지키는 일……진 알 쿡 장로……36
말일의 예언자들의 말씀……38
지역 지도자 메시지……이 호 남……45
해외 소식……46
지역 소식……47

통 권 : 제175호, 제16권 제 2 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0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틸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1980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STOCK NO. PBMA0427KO PRINTED IN SEOUL, KOREA 2/80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8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2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4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나의 의도는 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여호수아의 권고를 받아들여 여호수아 같이 결심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나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여호수아 24 : 14-15)

여호수아가 이 훌륭한 말에서 강조한 두 가지 요점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요, 둘째는 지금 곧 "오늘"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권고와 결심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다음과 같은 앰울레크의 훌륭한 말이 떠오릅니다.

"보라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이 생애의 나날은 사람이 저들의 일을 수행할 날들이라.

"…너희의 회개를 마지막까지 미루지 않기를 바라노라. 영생을 준비시킬 목적으로 주어진 이 생이 지나며, 보라 우리가 생을 누릴 동안 시간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밤의 어둠이 다가오느니라.

"너희가 긴박한 위기에 처하고 난 뒤에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할 수 없으리라. 참으로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리니, 이 생애에서 너희 육신을 다스린 그 영이 영원한 세상에서도 너희 몸을 다스리리라.

"보라 너희가 죽기까지 회개를 미루면 너희는 악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 악마가 너희를 저의 것으로 하며, 주님의 영은 네 몸에 거할 곳이 없어 물러나리니, 그렇게 되면 악마가 온전히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악한 자의 마지막이 이러하리라."(앨마서 34 : 32-35)

앨마서 12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앨

마는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요"라는 앰율레크의 말의 근거를 설명하고 있읍니다. 그는 필멸의 생활 곧 현세의 생활이 우리의 최초의 부모인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졌으며, 이 현세의 생활은 "시험의 생활이 되었으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었고… 죽음에서의 부활 이후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앨 12:24)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담에게 또한 우리에게도 알려진 구속의 계획으로 인하여 아담과 우리가 회개와 복음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앨마는 인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구속의 계획을 알려 주신 후에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계명을 주셨으며, 악을 행한 죄값은 둘째 죽음이나, 곧 영원히 의로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영원한 죽음이라. 구속의 계획으로도 악을 행한 자를 구속할 능력이 없을 것이니 하나님의 절대의 선하심으로 하여 공의로우신 일이 진멸될 수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이것이 준비된 구속의 계획이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마음을 강퍅하게 먹지 아니하면 나의 독생자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않으면 나의 독생자의 자비를 얻어 죄사함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한 자들만이 나의 안식의 처소에 거하리라.

"또한 누구든지 마음을 강퍅하게 먹고 죄를 범하는 자는, 보라 분명히 말하노니 나의 노여움으로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앨 12 : 32-35)

우리 각자가 연령에 관계없이 오늘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앨마는 그의 아들 힐라맨에게 젊을 때 결심하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읍니다.

"나의 아들아, 네가 젊었을 때 명심하여 지혜를 배우라. 또한 젊을 때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

"하나님께 간구하여 도움을 구하고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이 주께 합당하도록 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의 뜻대로 하며 너의 생각하는 것도 주의 뜻을 따르게 해야 할지니, 너의 마음의 사랑을 영원토록 주님께 돌리게 하라.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할지니, 주께서 너희를 선으로 인도하시겠음이라. 네가 밤에 누울 때 주님과 함께 하면 잠자고 있을 동안 주께서 너를 살펴 주실 것이며,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너희 마음이 가득차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할진대 마지막 날에 높이 들리우리라."(앨마서 37:35-37)

앨마는 그의 아들 코리앤톤에게 다음과 같은 훌륭한 진리를 말했읍니다.

"네게 이야기한 회복의 원리가 너를 죄에서 행복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앨마서 41 : 10)

현세와 내세에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데이비드 에이 웨튼

조만간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경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의 신성에 관한 표적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모든 무릎이 꿇어 절할 것이요, 모든 혀가(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 고백할 것임이라"(교성 88 : 104)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지식은 기도와 명상으로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 : 3)여기에 표현된 말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가짐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써 영생을 얻습니다. 나는 이 두 가지 지식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데 갖추어야 할 모든 필수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며,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도록 간구하고 그에게 의지하며 그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와…항상 교통하는 데 필요한 일을 행하십시오."(설교집 8 : 339)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들었거나 관찰한 것이 우리의 관계가 바람직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경우 나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아는 데 흥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예수님의 일을 근거로 삼아 추론된 예수님의 네 가지 성품 때문에 나는 주님이야말로 내가 진심으로 찾아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읍니다.

첫번째 성품은 구세주께서 우리 각자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대에 백성들의 마음의 소망과 그들의 내면의 영적인 자질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종종 그는 그의 이웃으로부터 경멸을 받은 추방당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

읍니다. 최초의 십이사도 정원회를 구성할 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는 왕족의 가정이나 공회의 회의소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바닷가의 고깃배와 경멸받은 세리의 책상으로 가셨읍니다.

1831년, 바로 지금부터 150년 전에 주님이 회중에서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교리와 성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보라, 오 너희 함께 모인 나의 교회의 장로들아, 들으라.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의 마음을 알며 너희의 소망은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보라, 나의 눈은 너희 위에 있고…(교리와 성약 67 : 1-2)

또한 우리는 교리와 성약 5편에 나와 있는 계시에서 주님이 "나의 종 마틴해리스"(교성 5 : 1)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아셨읍니다. 그는 또한 교리와 성약 15편에 기록된 존 휘트머의 이름 뿐만 아니라 교리와 성약 93편에 기록된 프레드릭 지 윌리암스의 이름도 알고 계셨읍니다. 사실상 주님은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계시에서 65여 명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읍니다.

나는 주님이 우리 각자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생애에서 시련이 닥치는 동안 여러 번 주님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도와 주시는 것을 느꼈읍니다. 선교 지역에서 고통스러운 부상을 당한 이후에 두려움을 느낀 때이든, 가족과 헤어져 월남에서 군복무 중에 외로움을 느낀 때이든, 또는 사랑하는 전우의 죽음 다음에 오는 무서운 공허감을 느낀 때이든 간에 나는 "가만히 있으라", "침착하라", "내가 곁에 있느니라", "내가 아느니라"고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갖게 되는 감미롭고 평화스러우며 위안을 주는 확신보다 더 나은 위안물이 없음을 알았읍니다.

구세주의 두번째 특성은 그의 능력입니다. 그는 스스로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우리에게 공감을 갖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구세주께서는 유혹받을 일, 괴로움당할 일, 두려운 일, 조롱받을 일, 그리고 학대당할 일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가 인간적인 고뇌인 외로움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고뇌를 가장 심한 인간적인 고뇌라고 말합니다. 나는 구세주께서 생의 종말이 임박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한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읍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요 16 : 32)

우리는 구세주께서 배척당하고 외로움을 느끼셨을 뿐 아니라 시험도 받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의 기록에 따르면 구세주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히 4 : 15) 분이셨읍니다. 이 사실은 구세주와 우리와의 관계에 어떻게 미칩니까? 바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히 2 : 18)

예수님은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을 갖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셨읍니다.

한번은 긴 설교를 마친 후 그는 제자들에게 "저희가…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마 15 : 32)고 말씀하시고는 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로 4천 명을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백성들의 영적인 필요 사항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 사항에 대한 그의 관심을 보여 주셨읍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고 그의 무한한 사랑과 신임을 받을 만큼 합당할까 하고 궁금히 생각할 때 우리에 대한 그의 깊은 자비심은 위안의 원천이 됩니다. 나는 초기의 교회 회원들에게 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다시 확신합니다.

"보라, 너희 나의 교회의 장로들아, 들으라, 인간의 약점을 아시며 유혹에 빠진 자를 건져 낼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주가… 말씀하시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나는 너희를 측은히 여기리라.

"너희 가운데 죄 지은 자가 있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리니…" (교리와 성약 62 : 1, 64 : 2-4)

십이사도 평의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다가 작고한 휴 비 브라운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매우 종종 나는 손을 위로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그는 나의 간구에 응답하고 나를 곤경에서 구해주시기 위해 항상 가까이 계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셨읍니다."(처치 뉴스, 1975년 12월 6일, 3페이지) 나는 브라운 장로의 간증에 다음과 같은 이사야의 위대한 예언으로 나의 간증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사야는 "기묘자"와 "모사" (사 9 : 6)가 될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읍니다.

우리가 구세주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 세 번째 특성은 우리에 대한 그의 깊고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의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와 자매가 똑같은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진하여 받은 큰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바울은 이렇게 외쳤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마서 8 : 38-39)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를 돕기 위해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간증이 아닙니까? 진실로 신성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다. "눈에는 눈으로"라는 생활 원리에 따라 지배되고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희생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감사에 관계없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못박히셨으니 우리야말로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번째 특성은 그를 모든 다른 인간과 구별해 주는 그의 성스러운 권세 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실 뿐아니라 우리의 발전에 관한 일을 행할 권세도 갖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삶을 변화시키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모두 주님이 바울과 앨마의 경우처럼 거의 하룻밤 사이에 문자 그대로 백성을 변화시킨 것에 관한 이야기를 읽

었읍니다. 그러나 종종 개심의 기적에 관해 전해지지 않은 사소한 일상 생활의 본보기는 더 쉽게 이와 관련시켜 말할 수 있읍니다.

나의 가장 잊혀지지 않는 선교 경험의 하나는 캐나다 에드민턴에 있는 한 비회원의 어둡고 습기찬 지하실 아파트에서 얻은 것이었읍니다. 나는 동반자와 함께 줄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지혜의 말씀을 지키며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읍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기 위해 그의 보잘것 없는 거처로 오도록 우리를 불렀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갖 노력을 기울였읍니다. 그런데도 나는 금연할 수 없었읍니다. 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며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만 이 습관은 결코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좌절감을 가진 이 사람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형제님은 금연할 수 있읍니다. 왜냐하면 형제님에게는 필요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위안과 확신을 주는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을 읽어 보도록 부탁했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 : 13)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와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 그와 가족이 침례받을 수 있도록 그의 인생 행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용기와 굳은 의지를 주시도록 간구하였읍니다. 그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며, 주님의 영이 그의 힘을 증대시켜 줌에 따라 19세의 젊은이가 그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지켜 본 것은 진실로 간증을 굳건히 해주는 경험이었읍니다.

가장 설득력있는 분은 갈릴리의 예수님이 아닐까요. 그 밖에 우리를 잘 알고,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많은 일을 행하였으며, 자비와 이해심을 보여 주었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도록 해주는 성스러운 권세도 갖고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친밀한 동반자와 진실한 친구로서 찾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다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 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소망을 품도록 충분히 동기를 부여받읍시다. 간절한 기도와 깊은 명상을 통해서 그와 시간을 보냄에 따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그가 진실로 우리의 가장 다정한 친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바울의 통찰력을 감사하게 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친구들 중의 한 사람인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예함을 알려하여…"(빌 3 : 8, 10) ✻

데이비드 에이 웨트, 일리노이 대학 조직행동 과학 교수, 샘페인 일리노이 스테이크 샘페인 와드 감독.

인생의 사업

스터얼링 더블류 실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나는 인생의 사업은 성공하는데 있음을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하리만큼 갖가지 개성을 부여하시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정신력과, 놀랄만한 체력을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실패로 끝맺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낭비적인 일은 우리 인간이 각자 지닌 가능성에 훨씬 못미치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교회의 대관장은 모든 교회 회원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많은 성인이 아직도 수련 장로로 있다. 선교 사업에 나간 사람 중에도 2년 간은 종교적인 활동을 증가시켰다가 돌아와서는 예전과 같이 나약해지는 경우도 있다.

주님께서는 그의 메시지가 모든 나라 민족, 방언, 그리고 백성에게 전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름을 받고도 이웃 담 넘어, 혹은 마을 끝까지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정 복음 교사는 회원을 방문하여 복음을 가르치게 되어있지만, 흔히 대화하는 내용이 날씨나 정치 이야기에 그쳐 그들은 계속 어둠속에서 분명한 것을 보지못하는 생활을 해야 하게 된다. 영적인 전달자가 없으면 영적인 메시지를 줄 수가 없다. 전달자의 생활 태도가 게으름과 부도덕과 나약함과 죄악과 실수로 가득차 있다면 메시지에서 전혀 힘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성공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의 공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다.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성 130 : 20, 21)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공을 좌우하는 율법을 찾아 그곳에서 출발해 나아가야 한다. 한가지 위대한 진리를 지적하고자 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경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몸소 모든 시간을 다 바쳐 마련하신 중요한 과업에 깊이 참여하여 높이 서는 것이다. ✻

사실 : 몰몬경은 현재 전 세계 언어의 1퍼센트 이하로 발행되어 있다.

사실 : 모사한 바에 의하면 몰몬경을 번역하는 데 4—10년이 걸리고, 15권의 소책자와 선교사 토론을 번역하는 데는 5년이 걸린다.

사실 : 우리가 1년에 4가지의 새로운 언어로 몰몬경을 번역한다면, 1백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도 모두 번역하는 데는 40년이 걸린다. 전 세계에는 3,000개 이상의 언어와 많이 쓰이는 방언이 있다.

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비결이 브리감 영 대학의 번역학 연구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그 곳에서 두 가지 다른 문제를 동시에 연구하고 있다. 그것은 곧, (1) 컴퓨터 낱말 처리 및 번역, 보조 (2) 상호 컴퓨터 번역을 말한다.

한 페이지의 영어를 한 페이지의 스페인어로 옮겨적는 것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번역사가 원문을 다른 언어로 바꾸면, 원고를 타자로 쳐서 교정하여 고친다. 다시 검토하여 재타자하고 교정한다. 식자한다. 다시 교정한 다음에 인쇄에 들어간다. 어떤 단계에서나 실수가 따르게 되며, 시간이 걸리게 된다.

브리감 영 대학 번역학 연구원에서는 다른 과정 즉, 낱말 처리 과정을 연구중이다.

그것은 번역사가 원고를 가지고 직접 컴퓨터에 타자해서 스크린에 나타나는 키보드를 보고 위의 과정을 행한다. 그는 번역하면서 교정하고, 편집하며, 수정할 수 있다. 낱말을 바꿀 필요가 없으면, 다시 타자할 필요가 없고 글자도 틀리지 않게 된다. 그는 단어, 문구, 문장, 문단, 혹은 페이지까지도 추가하거나, 삭제하며 바꿀 수가 있다.

끝마치게 되면 번역한 자료를 카셋트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하는 번역

브리감 영 대학의 번역학 연구원은 최소한의 인간의 도움을 받아 컴퓨터로 대부분의 번역을 하는 과정을 개발중이다.

테이프나 컴퓨터 디스크에 기록하면 된다. 검토하는 사람도 똑같은 방법으로 남겨 두어야 할 것은 바꾸지 않고 필요한 것만 수정할 수 있다. 컴퓨터가 그것을 식자하게 된다. 번역학 연구원에서 낱말 처리 과정(신문사에서도 사용한다)을 발명한 것은 아니다. 번역학 연구원이 그것을 교회 번역과와 협의하여 번역에 사용하는 데 선구자가 되었다.

결과는? 실제 번역에는 똑같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다른 단계가 빨리 진행됨으로 전체 시간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컴퓨터로 일을 빨리 처리하게 됨으로 절약되는 돈도 놀랄만하다.

번역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있다. 현재 계획되어 추진되는 사업은 지금은 하나씩 힘들여 찾아야되는 사전과 번역이 끝난 모든 경전을 비데오 스크린에 나타나게 하는 순간 수정제도이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몇가지 보조물은 대부분 언어의 음절 부호를 나타내는 시스템으로 10,000자의 중국 한자를 인쇄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표준 경전 용어 색인을 개발시켰다.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중국어 편집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두번째 촛점은 공상 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상호 컴퓨터 번역이다. 컴퓨터가 번역 과정을 행하도록 인간이 조정을 하는 것이다. 브리감 영 대학 번역학 연구원이 이 기능을 발휘하는 유일한 중심지가 되고 있다. 브리감 영 대학 연구원은 그 개척자적인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전통적으로 컴퓨터 번역에 장애가 되는 문제는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구어체 및 특별한 문법을 기계가 처리해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언어학 부교수이며 연구원 책임자인 엘든 라이틀 박사는 여러 문장의 관계에 관하여 컴퓨터를 "지시해"주고 번역되는 언어의 동의어를 "말해" 주는 연접 문법이라고 불리우는 언어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그것은 컴퓨터의 구조적 표현을 구성해 내고 목적하는 언어와 관계되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

기계가 처리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나오면 기계가 멈추고 오퍼레이터(조작자)에게 질문한다. (이 단계에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사람은 영어와 모국어를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애매모호한 표현이 해결되면 컴퓨터가 과정을 끝내고 번역 원고를 내놓게 된다.

그런 다음에는 목적하는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영어와 목적하는 언어를 함께 보여 주는 비데오 판에 나타나는 번역문을 검토한다. 이렇게 하여 오퍼레이터(조작자)가 원문과 번역문의 의미에 관하여 마지막 결정을 한다. 각자 자기 모국어의 미묘한 표현에 책임진다. 이처럼 두 사람의 전문가가 합세하여 더욱 정확한 번역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번역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겠는가? 1977년 6월의 스페리 유니펙스사(컴퓨터 회사)의 평가에 의하면 문법, 낱말 선택, 완전함 등에서 96퍼센트가 기계적으로 정확했다. 모든 시스템이 운영되면 정확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번역학 연구원은 영어를 독일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그리고 중국어 등 5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5개국어 번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며 번역한 후에 편집이 별로 필요 없으므로 5시간 걸리는 일이 2시간에 끝나게 된다. ✻

누구보다도 더 높이

매리온 디 행스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나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주일에 내가 소속된 와드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드문 일입니다. 우리는 맨 뒤의 좌석에 앉았읍니다. 나의 외아들만이 감독의 초대로 단상에 앉았읍니다. 감독은 나의 아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회중에게 소개한 다음 아론 신권 승진을 위한 지지를 물었읍니다. 우리는 모두 그를 지지했으며 후에 나는 감독의 권유로 나의 아들을 안수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읍니다.

그날 오후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에, 그는 자매들에게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 말했읍니다. 그가 통로를 걸어나가 감독과 함께 회중 앞에 섰을 때 약간 떨렸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들이 나를 지지하기 위해 손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손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간 것을 보았어, 그때 나의 마음이 안정되었어" 나는 그때 나의 손이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높이 쳐들었읍니다. 그는 내 아들이고 그것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기쁨의 표현이었읍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나는 몰몬경을 사랑합니다. 나는 언제 처음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기억할 수 없지만 이 책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용은 대부분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한 교훈과 가르침과 간증인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들에게 특별한 책임을 주셨읍니다. 그분은 그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우리가 증거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가르쳤읍니다.

영국의 시인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 (1772-1834)가 한번은 어떤 농부가 자

기 자녀들이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이 깊고,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결코 그들에게 종교적인 원리를 부여하거나 억지로 교회로 데리고 감으로써 종교를 받아들이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는 자녀들이 자라서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이 농부는 그의 생산적인 농장과 잘 관리된 소채원과 영리한 자녀들로 유명했읍니다.

콜리지는 그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훌륭하십니다! 그것은 매우 진보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생각을 당신의 농장과 과수원에도 적용해보시지 않으시겠읍니까?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땅을 갈고 나무 가지를 자르고 소채원을 경작함으로써 그것들을 간섭하지 마십시오. 왜 그들이 당신이 바라는 대로 자라는지 아닌지 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들을 가르칠 책임을 부여했읍니다. 그는 아버지들에게 특별한 책임을 부여했읍니다. 그는 우리에게 몰몬경에서 특별한 모범을 보였읍니다. 거기에는 자기 자녀를 가르친 부친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읍니다. 리하이, 앨마, 몰몬 같은 사람에 관해 생각해보십시오.

그들은 부친으로서 무엇을 가르쳤읍니까? (1) 그들은 자녀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는 기본적이고 아름다운 회복된 원리와 영원한 의미의 원리와 이론을 가르쳤읍니다. (2) 그들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분별있고 효과적인 권고를 주었읍니다. (3) 그들은 생활과, 문화와 문명의 기초가 되는 가치를 가르쳤읍니다. (4) 그들은 한결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와 영원한 구원의 계획에 관한 강한 개인적인 간증을 했읍니다.

첫째 모범과 지시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강한 은사를 준 리하이에 관해서 생각해봅시다.

리하이는 그의 위대한 시현과 전능하신 이의 경고와 약속을 자기 아들과 함께 나누었읍니다. 이러한 것들은 니파이의 초기의 외침의 기초가 되었으며 그의 기록의 첫 부분에 실은 간증의 기초가 되었읍니다. "내가 기록하는 바가 진실함을 알며, 또한 내가 아는 바대로 나 스스로 기록하나니…나의 부친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줄을 당신께서 아시나이다."(니일 1 : 3, 11 : 5)

리하이가 니파이에게 특별히 알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중 한가지로서 자기가 본 시현 즉 들에 있는 나무와 그 나무의 열매와, 나무에 이르는 길과, 쇠막대, 더러운 물의 깊이와, 넓은 건물 등을 그의 아들과 함께 나누었읍니다. 그런 것이 상징하는 것은 매우 간단했읍니다. 그 나무는 생명의 나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읍니다. 그 길은 의의 성취에 이르는 길이었읍니다. 나무의 열매는 다른 모든 열매보다 귀중하고 먹음직스러웠읍니다. 건물은 세상의 교만과 허영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매우 잘 알려진 시현으로 리하이는 그것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웠고 또한 아들에게 가르쳤읍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된 자들이 있읍니다. 악마의 유혹인 어둠의 안개에 덮힌 길에서 감미로운 열매가 달린 나무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도 있읍니다. 그들은 길을 잃고 헤매었읍니다. 막대기를 잡고 길을 따라가서 열매를 따먹고 그것이 달콤함을 맛보지만 사방을 둘러보

았을 때 경멸의 손가락짓을 하며 조롱하는 자들을 보고 금지된 길로 접어들어 길을 잃는 자들을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끝끝내 막대기를 붙잡고 길을 따라가 열매를 따먹고는 즉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그 감미로움과 영원한 기쁨을 나눌 자기 가족이나 그 이외의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살핀 사람들도 있읍니다.

그리하여 리하이는 이러한 시현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모든 것에는 상대가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지상의 삶과 영원한 삶의 과정이 결정되며 악마가 존재하며 그에게 굴복하는 자들도 있으며 가장 감미로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나누는 것에 있음을 가르쳤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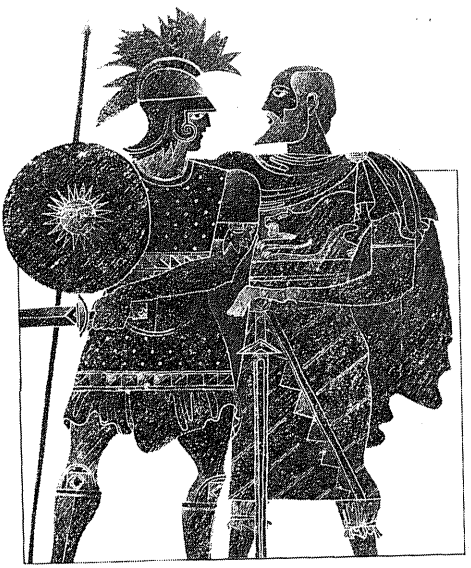
리하이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위대한 교훈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권세 아래 그들을 가르쳤읍니다. 우리는 예언자 앨마에게 특별히 친근감을 갖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불완전함과 회개의 필요성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앨마의 죄는 잘 알려져 있었읍니다. 그는 모사이야의 아들과 함께 교회를 멸하기 위해 나아갔읍니다. 그는 일부러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의 백성들을 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기쁨을 느꼈읍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가운데 그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에 의해 완전히 자신을 돌이켰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 하지 말라. 비록 너희가 스스로 버림받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라" (모 27 : 11-16)

수년 후에는 슬픔을 토로하는 정직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그가 말한 것은 어디서나 읽을 수 있고 누구에게서나 들을 수 있는 회개와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가장 의미심장한 교훈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메시지는 앨마서 39장부터 42장에서 찾아볼 수 있읍니다. 코리앤톤은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으나 그의 사명을 던져버리고 창녀 이사벨을 따라갔읍니다. 그의 많은 사람들도 그를 따라갔읍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자신을 변호하려 했읍니다. "아버지, 시대는 변화되고 있읍니다.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코리앤톤의 시대는 오늘날의 실정과 동일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의 죄는 현실적이며 그의 위험도 현실적이었읍니다. 그것을 받아들이



는 문제는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그의 구원은 거기에 달려 있었읍니다.

앨마는 그의 아들에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서 그가 동정적으로 대답했으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코리앤톤으로 하여금 만일 자기 죄의 심각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음을 알게 해야 했읍니다. 앨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너가 행한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이의 살인을 범하는 것이니라 너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감미롭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위태롭게 했느니라. 이제 만일 네가 곤경에 처하지 않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적게 벌하며 용서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니라."

이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자신이 몸소 좋지못한 경험과 고통을 겪었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그와 동일한 길을 걷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 길에서 돌아오지 않을까봐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코리앤톤은 살아서 돌아왔읍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기를 중단하고 실제로 이렇게 말했읍니다. "아버지 그 책임을 받아들이겠읍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슬픔을 감수하겠읍니다" 그외에 있었던 일은 기록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것을 읽을 수 있읍니다.

앨마는 기뻐서 그의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목적과 의미에 관해서 가르쳤읍니다. 그는 충고를 받아들이고 순종적이고 꾸준한 그의 형제들의 모범을 따르도록 권고했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끝맺었읍니다. "나의 아들아, 이러한 일로 다시는 염려하지 않기 바라노니, 오직 죄가 너를 괴롭히게 하고 그 괴로움으로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노라."(앨 42 : 29) 코리앤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자신을 용서하기를 배워야했읍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버지는 몰몬입니다. 그의 아들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모로나이서 7장 8장 9장에 있는 그가 보낸 두 서한에 기록되어 있읍니다. 하나의 간략한 모범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동기를 부여해줄 것입니다.

몰몬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들이 선교사로 나간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편지의 결론을 장식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행과 타락에 관해 말하고 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 백성들이 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 백성"이며 "내가 저들을 추천하지 못하는도다."(모로 9 : 20, 21)

그러나 그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아들을 추천할 수 있었읍니다. 또한 그는 아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기도했읍니다. 나는 이제 몰몬이 강조한 점, 그의 소망, 그의 증언의 성취로써 아버지들의 가르침에 관한 이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아들아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믿으라. 또한 내가 기록한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여…그리스도께서 너를 들어올리사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망, 그의 몸을 조상에게 보이신 일,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 그리고 그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이 영원히 네 마음에 깃들게 하라"(모로 9 : 25) 그의 마지막 증언은 교훈과 애정과, 간청과 신앙에 관한 것이었읍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위해 어느 누구보다도 높이 손을 쳐들었읍니다. ✻

나의 아들 곧 나의 친구

제이 엠 토드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7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되는 것의 여러가지 면에 관해서 생각할 때마다 멕시코 시티에 살고있는 만웰 세어다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세어다 형제를 1972년 그의 나라에서 최초로 갖게 된 지역 대회때 만났다. 나는 그에게 말일성도 가족을 만나 복음이 그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알고 싶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나의 통역자인 제시 투루히조우와 나는 베네메리토로 가서 만웰과 마리아 세어다의 집으로 초대받았다. 그들에게는 다섯 명의 성장한 아들이 있었다.

나는 왜 우리가 그들의 집에 초대되었는지 알게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17년 전으로 되돌아간다. 선교사들이 현재의 집에서 남동쪽으로 225킬로미터 떨어진 테이와칸에 있는 그들의 문을 두드렸다. 6개월 내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5명의 아들들이 침례받았다. 그당시 빅터는 23세였고 어거스틴은 21세, 모이세스는 19세, 라몬은 17세, 길버토는 16세였다. 일년이 채 못되어 아들들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오래되지 않아 다섯 아들 모두가 동시에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던 6개월 동안의 특별한 기간이 있었다. 또 재미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이 다섯 아들은 2개월 이상 서로 동반자가 되어 봉사했다.

만웰 세어다는 오직 그의 아들만 선교사로 내보내어 뒷바라지 해주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모범을 보여야겠다고 결심했다. 그와 그의 아내 마리아는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했다. 그들의 주위에는 비회원 친구와 이웃이나 친척들이 없었나?

그리하여 다섯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 있는 3년 동안에 만웰과 마리아 세어다는 70명을 교회로 개종시켰다. 만웰과 마리아는 매주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는 연달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차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나온 기쁨과 진리가 다섯 아들의 마음 속에서 불타고 있었다.

곧 이 가족의 증언은 신앙과 힘과 사랑의 위대한 불길로 타올라 멀리 멀리 전달되었다. 그들의 선교 사업이 끝날 무렵 아들들은 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빅터와 그의 동반자는 140명, 어거스틴과 그의 동반자는 106명, 모이세스와 그의 동반자는 160명, 라몬과 그의 동반자는 75명, 길버토와 그의 동반

자는 233명, 이렇게해서 모두 784명을 침례를 주어 개종시켰다. 내가 1972년에 그들을 만났을 때 그 가족은 53명 이상을 더 데리고 와서 교회 회원 가운데 837명의 영원한 친구가 있었다.

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들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다. 마지막으로 나는 서투른 스페인어로 현재 그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고 있는지 물었다. 그들 가운데는 감독, 주일학교 회장, 집행서기 선교부장단 보좌도 있었다.

나는 아버지인 만웰을 향하여 그는 지금 무엇을 맡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감독단 보좌로서 봉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내가 질문을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형제들 가운데 한명이 그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보좌로 감독단에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의 인터뷰 가운데 가장 훌륭했던 순간이 왔다. 나는 감독인 빅터를 향하여 "아버지를 보좌로 모시고 일하는 느낌이 어떻습니까"라고 질문했다.

그는 신나는듯이 "나는 아버지에 대한 커다란 사랑을 갖고 있읍니다. 그는 언제나 나에게 훌륭한 조언을 해주십니다. 아버지는 나의 모범이 되시며 나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곤경에 빠질 때 나를 도와 주고 있읍니다. 우리 아버지 이외의 누구에게 조언을 청하겠읍니까?"

나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만웰에게 몸을 돌려 "아드님의 보좌로서 일하는 느낌은 어떠하신지요?"라고 질문했다.

스페인 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엄있는 말투로 만웰 세어다는 부드럽고 천천히 그리고 격정적인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들들에게 큰 사랑을 갖고 있읍니다. 그들을 충고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고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느꼈을 그러한 것과 비슷한 느낌을 갖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읍니다."

나는 다시 그들에게 "도대체 이와 같은 가족의 사랑을 가져오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하고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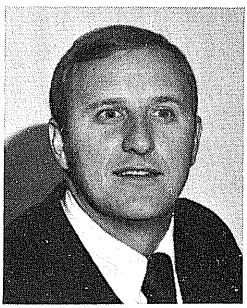
아버지되시는 만웰 세어다는 다른 아들들의 대답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킨 것은 복음이었읍니다. 이 복음은 나에게 서로 영원한 친구로서 대하도록 가르쳤읍니다. 그것은 나에게 애정과 사랑을 가르쳐 주었읍니다. 그것은 또한 나에게 자녀들을 존중할 것을 가르쳤읍니다. 우리는 가족을 분열시키려는 세력과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 서로간에 존경심을 심어 주었읍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읍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작별 인사를 한 후 우리는 만웰 세어다의 집을 나왔다.

그후 몇 년이 지난 오늘에도 만웰 세어다는 여전히 마음 속에 남아 있다. 나는 아버지와 현대의 가족과 가정,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만웰 세어다를 회상하게 된다. 나는 또한 나 자신의 훌륭하신 육신의 아버지의 모범과 하늘 아버지의 가르침과 내가 자신의 생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구했던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개념에 대해 회상하게 된다. ✻

질의 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클리포드 제이 스트래튼 박사 네바다의과대학, 해부학 부교수, 리노 네바다 북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생약차는 지혜의 말씀에서 금하는 "뜨거운 음료"에 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중함과 감사함으로 사용해야"하는 것입니까?

훌륭한 질문입니다만, 이제까지 알려진 약초만 해도 수 천종에 달하지만 완전히 연구가 된 것은 아니어서 그것의 의학적인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흔히 보는 약초나 생약차는 분석이 되어 있다는 점이며, 따라서 나는 의학 도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세상에 흔히 알려져 있는 내용이나 광고로 쓰이는 정보는 흔히 믿을 수가 없읍니다.

모든 생약차를 이 제한된 지면에 모두 실을 수 없으므로 이중에서 가장 애용되는 것 몇 가지만 들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루비아는 수 세기 전부터 널리 차를 달여 먹는데 애용되어 왔읍니다. 그것은 탄닌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황록색의 휘발성 기름으로 되어 있읍니다. 사루비아 리플렉스 종은 독성이 있으나, 약용 사루비아는 현대의 기침약과 인후염을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읍니다. 그것으로 양치질을 하면 침을 많이 흘리는 것을 막아주고, 항박테리아 효과가 탁월합니다.

페넥스 또는 인삼차는 매일 수 백만명이 마시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콩팥의 부신선을 자극하며, 부신 피질 호르몬의 분비를 활발히 증가시켜 줍니다. 이것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신진대사, 전해질과 수분의 균형, 심장, 콩팥, 수의근 및 중추신경 계통에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박하, 양박, 하페퍼민트(멘타)차는 위와 창자에서 가스를 제거하는 데 특효가 있으며 그 목적으로 적정량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읍니다. 민들레 뿌리(뿌리로 만드는 하제)는 19세기에 의사

들이 만성 간장병 치료에 사용하였으나 실제의 효용성은 실증되지 않았읍니다.

자주개자리(메디카고 사티바)는 코티손(부신 피질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며, 피부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혀 주기도 합니다. 합성 코티손을 조제하여 사용하게 된 이후로는, 그 식물에서 기타 바람직하지 못한 요소를 찾아내지 못하였읍니다. 류마티즘이나 관절염에 전통적으로 자주개자리를 사용하는 예는 오늘날에도 별로 찾아 볼 수 없읍니다.

클로버와 사사프라스(북미산의 녹나무과)차에는 독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각각 시안화물과 사피올이 들어있음) 그러므로 클로버 차는 미국에서는 금지되어 있읍니다.

수 많은 종류의 생약차가 일반적인 기호 음료나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읍니다. 규칙적으로 차를 마시기에 앞서 생약차의 성분을 알아 보아야 합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잘 알려져 있는 에페드라는 "사막의 차", "몰몬 차", "여인의 차", "멕시코 차"등으로 불리워지는 것으로 해가 없는 알카리성 차로 비타민 C를 다량 함유하고 있읍니다. 다량 복용하면 심장 박동수를 줄여 혈압을 낮추게 됩니다. 옛날에는 성병과 후두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설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북미산 에페드라와 중국산 에페드라를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데, 중국산에는 에페드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신경 계통에 강한 자극을 주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합니다.

이와같이 각 생약차는 그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난 연후에는 "뜨거운 음료"인가 아니면 "신중함과 감사함으로 사용해야"할 것인가를 구분지을 수 있읍니다. 대부분의 음료수에는 뚜렷한 약효가 별로 없어 따뜻한 음료수로 마셔 영양을 취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영양을 잘 섭취하게 되면 자연스럽지 않은 욕망을 느끼지 않게 되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한 약물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초를 주시면서 "신중함과 감사함으로 사용"(교성 89 : 10-11)하고 사소한 질병에 대하여 "육체를 강건케하라"고 하셨읍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것은 "적당히 취할 것이요 지나치거나 억지로 취하지말라"고 경고하셨읍니다. (교성 59 : 17-20, 89 : 10-11 참조)

여러 해 동안 약초의 의학적 성분을 조사해 온 의사로서, 나는 생약차를 약제로 사용하지 않는 중요성을 강조해야 겠읍니다. 많은 생약차에는 효능이 알려져 있지 않는 약효가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며, "민간 요법"도 믿을만한 지침이 되지 못합니다.

질병에는 반드시 의사가 조제한 약품을 사용해야 하며, 신중한 사람이라면 쓸데없이 아무런 생약차를 무턱대고 복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노고"

호머 지 엘스워스

"어머나, 아기가 장님이네요. 눈이 없어요!" 그 소리에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간호원들은 이제 막 여행을 마치고 세상에 태어나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신생아를 보려고 몰려들었다. 정말, 그러했다. 아기는 장님이었다. 눈이 있어야 할 곳에 없었다. 아름다운 간호원인 어머니와 의과 대학생인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구약의 저자와 마찬가지로, 의사인 나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전 3 : 10) 본 것이다. 나는 또한 하나님이 뭇 인간에게 주신 노고 곧 역경에 "인생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세밀히 관찰해 왔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게 되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을 약속했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히 12 : 6)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 경전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던 다윗과 같은 분들이 오히려 큰 시련을 받았음을 곧 알게 된다.

고난의 대명사처럼 불리우는 욥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자. 그는 자기 소유의 땅과 부와 친구와 아들, 딸을 모두 잃었다. 그는 온 몸에 부스럼과 종기가 나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아내조차 이 고통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의 태도는 확고했다. 하나님은 욥에게서 불운을 거두지 않으셨으나, 이 예언자는 더욱 확고한 신앙과 의로움을 보여 주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말씀하신대로 욥에게 그가 의로운 선택을 하고, 신앙을 지키며 계명에 순종하면 영원한 세상에서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에게 그가 죽을 때까지 신앙을 지켜 나가면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리라고 위로해 주셨다. 이러한 약속은 경전을 통하여 여러 번 반복되었다.

구세주는 지상에 계실 때 시련을 받아야 하며 끝까지 견디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는 모래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이야기를 했다.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어 닥치는 고난의 시기가 이르며 모래위에 지은 집은 쓰러졌으나 반석위에 지은 집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은 욥을 지탱시킨 신앙의 기초와 마찬가지로 그 기반에 있었다.

분명히 이 경륜의 시대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예언자 요셉은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과 떨어져 리버티 감옥에서 온갖 시련을 당하였다. 여러 달 동안 감방에 갇혀 식사도 하루에 두끼밖에 제공받지 못하고 온갖 것을 박탈당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외쳤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

이까?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린 큰 휘장이 어디 있나이까? 언제까지 당신의 손이 가만히 계시며…"(교성 121 : 1-2)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가 풀려 나거나 가족에게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주님은 예언자에게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거나 버림받게 되지 않고,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어다."(교성 122 : 7)라고 말씀했다.

실상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게 되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어머니와 장님 아기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 아기는 사랑으로 받아들여져 따뜻하게 보살핌을 받았다. 그 부모들은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 더욱 마음 아파하며,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된다.

나는 결혼하기 전에 진찰을 받기 위해 몇 년 전에 나를 찾아 온 한 아름답고 젊은 아가씨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팔 하나가 없었다. 나는 그녀가 자신의 병상 기록에 직업을 속기사로 적어 놓은 것을 보고 어렇게 물었다. "비서입니까?"

"놀라셨읍니까?"하고 그녀는 미소지었다. "나는 두 손으로 타이프치는 다른 소녀들만큼 빨리 칠 수 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께서 내가 기형으로 태어났으므로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두 손으로 하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 손으로 잘 해내는 방법을 배웠읍니다. 내 약점때문에 곤란하게 된 적은 한번도 없었읍니다." 나는 이 훌륭한 환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정신력으로 다스려 왔으며, 자녀들도 사랑으로 돌보아 주고 있다. 그녀는 역경에 훌륭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나는 서로 대조되는 두 가지의 반응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한 환자는 36세난 여성이었다. (편리상 그를 메리라고 부르기로 하자) 우리가 그녀를 수술대에 올려 놓고 보니, 그녀의 복강전체에 암이 퍼져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다음날 아침에 메리를 보자, 그녀는 "내가 암이죠?"라고 진지하게 물었다. 나는 마지못해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나는 얼마나 오래 살까요?"라고 물었다. 나는 확실한 기일을 말할 수 없노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기가 질문한 것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성인 아론 신권 소유자를 위한 특별한 과정을 얼마 전에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편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신전 준비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십대의 딸이 교회에서 활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 식구가 "신전 준비 세미나" 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감독은 6개월 동안 그들이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 일을 한다면 신전에 갈 수 있노라고 말하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메리는 자신이 신전에 가서 가족에게 인봉될 수 있도록 6개월만 더 살게 되기를 간구했다. 그 만큼만 더 산다면, 죽어도 한이 없을 거예요"하고 그녀는 내게 말하곤 했다. 메리는 6개월간 더 살았다. 그녀는 병원에서 있는 동안, 보통의 경우라면, 상당히 고통을 느껴 다량의 진정제를 필요로 했을 터이지만, 그녀는 상당히 명

랑하여 고통을 느끼지 않는 듯이 보였다. 메리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팔을 얌전히 모으고 불평 한마디 없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교리와 성약 42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안에서 죽은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니, 이는 죽음이 저들에게는 단 연고라"(교성 42 : 46)

그것은 그들의 신앙과 확신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친밀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달게 느껴지는 것이다.

내가 메리를 돌보아 주던 같은 때에 제인이라 하는 다른 환자도 돌보아 주었다. 그녀는 42세였다. 메리와 마찬가지로, 그녀도 암이었는데,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자 집을 떠나 어느 지방의 호텔로 거처를 옮겨, 복음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활양식을 취했다. 그녀는 술집에 가 술을 퍼 마시고, 담배도 피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스로 "죽기 전에 무엇이든 다 해 보겠다"고 말하며,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었다.

교리와 성약 42편에는 또한 이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 "내 안에서 죽지 아니한 자에게는 화 있을 진저, 이는 죽음이 저들에게는 쓴 연고니라."(교성 42 : 47) 그들에게 신앙이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죽음이 쓰게 느껴지는 것이다.

같은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한다. 한 사람은 인간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여, 착하고 아름다운 것을 받아들이며, 겸손과 동정심을 간직하고 있다. 다른 한 여인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뛰쳐 나와 슬픔과 부담감을 더욱 가중시키게 되었고, 고통이 심했다.

주께서 우리를 이 지상에 보낸것은 시험받고 문제를 해결케 하여, 지혜와 자율성이 더욱 커지게 하기 위함이다. 곤경에 처했을 때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성품과 정신 세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지식을 얻게 될수록,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 존재 목적을 그 만큼 더 완수하는 것이 된다. 만일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활해 나가, 아무런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내 연약한 인간이 되고 말 것이다. 시편 작가는 여호와께서 인간이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괴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시편 106 : 15 참조) 이곳에 있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훌륭한 인간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면전에서 충분히 의롭게 거하며 영생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유용한 인간이 되어야 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생활하면서 심각한 곤경에 닥칠 때마다 내적인 자아를 찾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입장에 계시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 것인가를 결정하여,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대로 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영혼을 파괴하게"한 채로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고난이 닥칠 때면 무릎꿇고 하나님께 그 고난을 피하기를 간구하기 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참으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것은 훌륭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

내 친구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고함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우리 와드의 감독인 아버지가 어느 날 나와 내 동생에게 할 일을 주셨읍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교회 일로 늦게 돌아 오시리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돌아 오셔서 우리가 송아지를 타고 있는 것을 보셨읍니다.

우리를 큰 소리로 부르신 당시 아버지의 표정과 말씀을 결코 잊을 수 없읍니다. "너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게는 큰 교훈이 되었으며, 심한 꾸지람이 되기도 했읍니다. 나는 앞으로 평생 아버지나 그 밖의 누구에게라도 그런 말은 듣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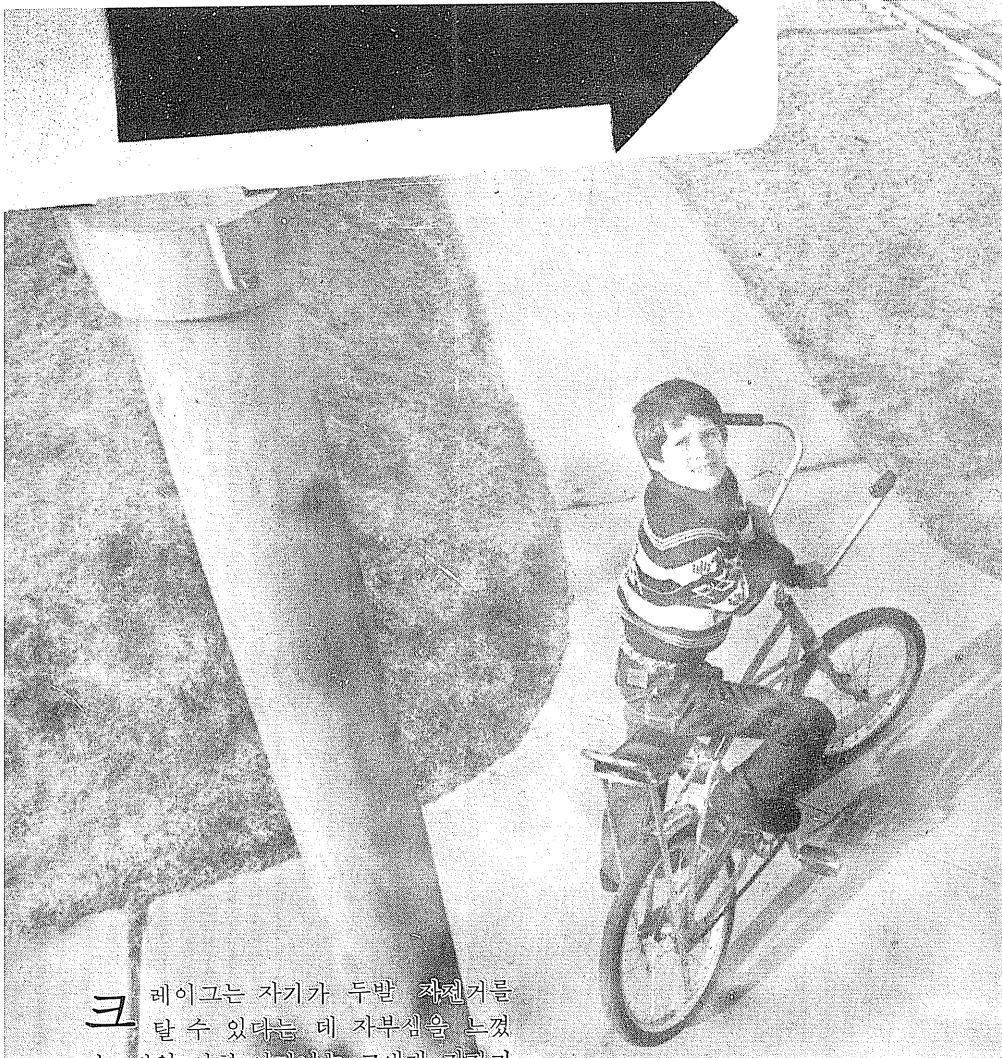
나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가족 기도를 할 때, 주님께 자주 하시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우리에게 몇마디 하시고 밭으로 돌려 보내신 것이 아니었읍니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무릎꿇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가 실수한 것을 주님께 말씀드렸읍니다.

"앨돈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가 실수한 것을 매우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앞으로 그가 옳은 일을 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주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훌륭한 소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침이면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하곤 하셨읍니다. "아버지께서 일하는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며, 저녁에 돌아 와 보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어 유혹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고 밤에 주님께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읍니다.

나는 늘 오늘밤에 주님에게 보고해야지라고 생각했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하루를 좀 더 잘 보내는 데 도움이 되었읍니다.

내게 기도와 믿음직한 인간이 되기를 가르쳐 주신 나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의 가족과 내가 함께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그 기도에 답해 주시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에게 기도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



진리를 찾은 크레이그

로이스 스프룬트

크레이그는 자기가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데 자부심을 느꼈다. 매일 아침 어머니는 그에게 자전거를 타고 그린 부인의 집으로 가게 했다. 크레이그의 아버지가 돌아 가신 후 어머니는 시간제로 일을 하셨다. 크레이그는 오후에 유치원에 가기 때문에 오전을 3.5블록 떨어진 그린 부인의 집에서 보내는 날도 있었다.

어느날 아침 크레이그가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니 여느때와 다르게 밖이 어두웠다.

"오늘은 안개가 아주 짙구나" 어머니

가 말씀하셨다. "오늘 아침에는 자전거를 집에 두어라. 그런 부인 댁까지 차로 데려다 줄테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볼 수 있어요." 크레이그가 말했다. "게다가 안개 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재미있어요"

크레이그가 간청하였으므로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반드시 엔도로 차고 불을 켜고, 커브를 전네갈 때는 특히 조심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니?

크레이그는 옅은 옷을 입고 아침을 먹었다. 그는 스웨터를 걸쳐 입으며 차고로 뛰어갔다. 안개 속으로 두발 자전거를 타고 가며 크레이그는 아침 공기가 이상하리 신비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갑자기 넘어졌다. 안개가 너무 짙어 갈라진 시멘트 사이의 깊에 패인 곳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전거 앞 바퀴로 잘 안 보이는데" 크레이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자전거에 뛰어 올라 엔도로 천천히 타고 갔다. 처음에는 안개낀 공기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 매우 재미있었다. 크레이그는 엔도로 가다가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조심해서 거리를 건넜다. 그는 제대로 길을 돌아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낯선 횡단 보도가 보였다. 그곳 모퉁이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고 어두웠다. 크레이그는 걱정이 되었다.

그는 자전거에서 내려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생각하며 오랫 동안 그 곳에서 있었다. 공기가 차거워 그는 스웨터의 깃을 올려 추위를 막았다.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큰 눈물 방울이 뺨 위로 주루루 흘러 내렸다. 그는 자기가 기도에 관하여 배운 것을 생각해 내었다. 그리고 지난 주에 교회에서 연사가 이야기하던 것이 생각났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에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크레이그는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기도하는 방법은 알고 있었다. 그는 안개 속에서 자전거 옆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린 부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 달라고 기도했다. 크레이그는 "아멘"이라고 말한 후에 일어섰다. 그는 안개가 조금 걷히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길을 제대로 찾기에는 아직도 너무 어두웠다.

그가 그 곳에 서서 어떻게 할까하고 망설이는 데 환히 불을 켠 스테이션 웨곤이 모퉁이에 멈추어 섰다. 한 남자가 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더니 말했다. "크레이그야, 길을 잃었니? 내가 태워 줄까?"

그 목소리가 제임스 감독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자 그는 안심이 되어 그 말을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감독님을 도와 스테이션 웨곤 뒤에 자전거를 실었다.

차에 올라 탄 후에 크레이그는 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가를 조용히 생각해 보았다. 그는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감독님에게 몸을 돌려 물었다. "제임스 감독님, 신앙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지요?"

제임스 감독님이 대답하셨다. "나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크레이그는 평온하고 확신하는 느낌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제임스 감독님"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두 친구

클라우디아 지이 레밍톤

토드는 철조망을 조심스럽게 끊어내고 담을 기어 올라갔다. 그는 그의 개 킹을 위해서 철조망을 들어 주었다. 콜리종 개가 그 사이로 조심스럽게 뛰어 들어 들판으로 뛰어 갔다. 4월의 햇살이 추운 겨울동안 두터워진 개의 금빛 털 위에 반짝이고 빛났다.

"이리와 킹!" 토드가 불렀다. 그는 햇볕에 따스해진 킹의 머리에 손을 올려 놓았다. 킹은 토드의 가장 친한 친구로, 필립스 씨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가까운 친구였다. 그가 사는 작은 산마을에는 토드와 같은 또래의 소년이 없었다. 그는 스쿨 버스를 타고 16킬로미터 떨어진 학교에 통학하였다.

토드는 또 다른 담을 기어 올라 필립스씨의 양 우리로 들어갔다. 그는 양 우리에서 왔다갔다하는 노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어둠침침한 우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그는 "안녕하세요!"라고 소리쳤다. 필립스 씨는 갓태어난 새끼 양을 핥아 주는 암양을 지켜 보고 있었다. 토드는 웃으면서 새끼 양을 보았다. 그는 새끼 양을 집어 들어 만져 보고 싶어했다.

"후에 만져 볼 수 있다." 목장주인이 두 자루의 삽을 집어 들며 말했다. "지금은 약간 재미없는 일을 해야겠다. 나와 함께 가자."

토드는 친구를 따라 킹이 참을성있게 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밝은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나왔다. 그는 토요일이 되면 대체로 필립스 씨와 함께 그의 양을 돌보며 보냈다. 필립스 씨가 할아버지와 같았으므로 토드는 그곳에 가기를 좋아했다.

"무얼하실 건데요?" 토드가 뛰어서 따라가며 물었다.

"토드야, 나는 네가 안 볼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 일 중의 일부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들이 들판의 모퉁이로 다가 오자 여러 마리의 얼룩 무늬 까치가 푸드득거리며 공중으로 날아 올랐다. 토드는 그곳에서 두 마리의 양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구 뜯긴 양을 보자니 그의 가슴이 메어지는 듯 했다.

필립스 씨는 삽으로 축축한 흙을 파기 시작했다.

"개들이 이 양을 죽였단다." 그가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토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개들이 언제 왔어요? 보신 적이 있으셔요?"

"새로운 댐 공사가 시작된 후에 4-5마리의 개가 함께 뛰어 다니는 것을 보았고, 사람들이 그들의 장비를 저 곳에 옮겨 놓았단다. 밖에 많은 장비를 두었으므로 사나운 개들에게 망을 보게 한다. "10-12마리의 양을 이렇게 잃었단다."필립스 씨가 말했다.

소년은 심한 분노와 화가 나는 것을 느꼈다.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하실 수는 없어요?"

"해 보았단다. 하지만 모두 밤에는 개를 묶어 두었다던가 그밖의 이유로 자기 개는 양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더라. 누가 죽였는지도 보지 못했으니까, 누구 책임인지는 모르겠어."

"왜 총을 가지고 여기 앉아서 밤새 지키지 않으세요. 개가 이리 오는 것을 보시면 쏴 버리세요."

"그런 생각도 해 보았다. 낯선 개가 내 땅에 들어 오면 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으니까."

토드는 필립스 씨를 도와 구덩이에 양을 묻어 주었다. 그들은 조용히 들판을 건너 우리로 들어 갔다. 킹이 조용히 그들의 뒤를 따랐다.

일요일 아침이 되자 토드는 주일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필립스 씨를 만나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빨리 조용히 옷을 입었다.

토드는 뒷문을 조용히 닫고 낮으막하게 휘파람으로 킹을 찾았다. 그는 킹이 개집에서 뛰어 나오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다리지 않고 조용히 들판을 건너 필립스 씨의 우리로 걸어 갔다. 마지막 담을 기어 오를 때, 그는 필립스 씨가 땅 위의 무엇인가에 몸을 숙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토드는 그가 개를 쏘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힘껏 뛰어갔다. 그러나 필립스 씨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공포와 슬픔이 한꺼번에 몰아 닥쳤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시선은 비에 축축히 젖은 개의 누런 털에 고정되었다. 필립스 씨가 올려다 보았다. 그는 토드에게 다가 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토드" 그가 말했다. "킹이다. 미안하구나." 토드는 필립스 씨의 얼굴을 바라 보았다. 눈물이 빗물과 함께 섞여 깊이 주름진 얼굴에 흘러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의 검은색 눈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토드는 멍한 느낌이 들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읍니까?" 그가 물었다.

"구름이 잔뜩 끼어 깜깜한 밤에 기다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단다. 깨어 보니 목장을 가로 질러 가는 개의 검은 모습이 보여서 쏘았다. 오늘 아침까지는 시체를 보지도 않았어. 킹인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 우리가 음식 부스러기를 놓아 두었는지 보려고 집으로 가고 있었던 모양이야." 필립스 씨는 소년을 팔로 감쌌다.

토드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어떻게 킹을 쏘실 수가 있어요. 킹을 잘 알고 매일 보시잖아요." 그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필립스 씨는 손수레를 가지러 가고 토드가 비에 젖은 큰 개를 들어 올리려고 애썼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들은 함께 개를 손수레에 싣고 노인이 이것을 밀어 토드네 집으로 갔다. 소년은 조금 뒤에서 조용히 슬픔에 젖어 걸어갔다.

필립스 씨가 개를 묻을 땅을 파 주겠다고 했으나, 토드는 혼자 구덩이를 파

서 개를 묻고 필립스 씨는 조용히 그것을 지켜 보았다.

월요일 밤에 필립스 씨가 토드를 위해 어린 양을 가지고 왔다. 토드는 그를 내다 보지도 않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양을 보고 싶지도 않다고 필립스 씨에게 말해 달라고 했다. 일주일 내내 토드는 학교에 갔다 와서는 방에 틀어 박혀 거의 침대에 누워 지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도 잔 일을 마치면 방으로 돌아갔다. 금요일 저녁에는 토드의 아버지가 그를 따라 방으로 들어 왔다. 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대 옆에 앉았다.

마침내 토드가 말했다. "아빠, 개에게도 천국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주려는 이야기일 뿐인가요?"

"개의 천국에 관해서는 모르겠는데, 하지만 모든 것이 육으로 태어 나기 전에 영으로 태어 났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영원하다고 믿는다."

"무슨 의미에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킹이 살아 있다는 의미란다."

"내가 죽은 후에 킹을 다시 보게 될까요?"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지" 토드의 아버지는 그를 찬찬히 쳐다 보며 말했다. "내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가지 있는데 이 적적한 곳에서 네게는 두 친구가 있었다. 사고로 한 친구를 잃었지,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나는 왜 네가 두번째 친구마저 잃으려 하는지 알 수 없구나. 필립스씨가 이번 주에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를 생각해 보았니?"

토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눈물이 비와 섞여 흘러 내리던 필립스 씨의 얼굴이 자꾸만 떠 올랐다. 근처에서 어슬렁대는 개를 쏘라고 한 것도 자기였다는 것이 생각났다. "난 그 어린 양을 원치 않아요. 어떻게 그 양으로 킹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라고 나는 확신할 수 있단다. 그분은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보이고 싶었을거야. 네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네게 상처를 준 것보다 너는 더 큰 상처를 그에게 주고 있는 거야."

토드는 그와 같은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었다. 그는 아직도 아빠를 쳐다 보지 않았다. 아빠는 갑자기 몸을 기울여 그의 뺨에 입맞춤해 주었다.

토요일 아침에 토드는 일찍 일어났다. 킹이 죽은 후에 매일 아침 경험하듯 가슴이 쓰리듯 메어졌다.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다. 토드는 옷을 입고 소리없이 나와서 들판을 가로 질러갔다. 그의 신발이 아침 이슬에 젖었다. 햇살이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어 주자 천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은 아직도 킹으로 인해 아팠지만, 그는 편안함을 느꼈다. 기도할 때 느끼는 것과 같은 포근한 느낌이었다.

그는 필립스 씨가 우리에서 털 깎는 도구를 모으는 것을 보았다. "앞으로 양떼를 많이 가지려면 그 양이 필요할 것 같아요." 토드가 문에서 말했다. 필립스 씨는 몸을 돌려 햇살이 비치는 곳으로 나왔다. 그의 눈빛은 따스하게 빛났다.

"정말 다시 만나니 기쁘구나, 토드야" 그가 말했다. "이 털 깎는 도구를 정리하는 데 네가 도와 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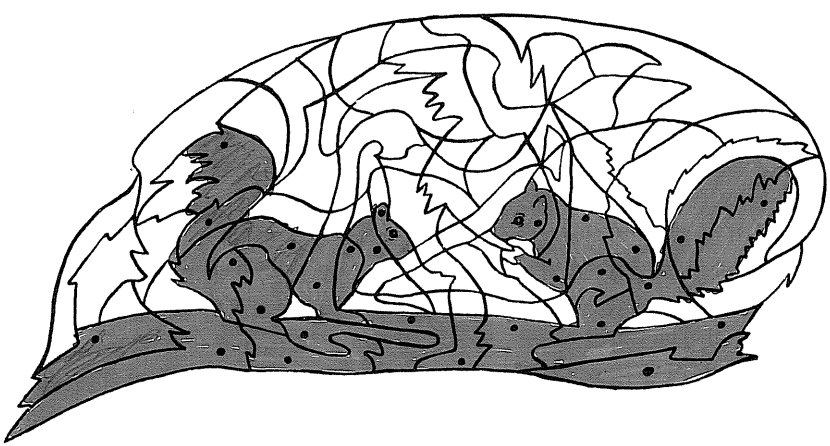
그들은 함께 우리로 들어갔다. *

심심풀이

말벌의 미로

말벌이 둥지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셔요.

로버타 엘 페어를



색칠하기

점이 찍힌 공간을 색칠하여 나무를 사랑하는 두 마리의 동물을 찾아보셔요.

캐롤 코너

친구를 위해

스코트 스노우

전 세계에서 신학원 중등부에 다니는 16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회원인 김 태환은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공부했다.

어느날 태환이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오늘 도시락 하나 더 싸 주세요"라고 부탁했다. 김 자매는 아들이 저렇게 빨리 커지니 식사량도 늘어나는 것이려니 생각하며 도시락을 하나 더 싸주었다. 그 후 김 자매는 매일 도시락 하나를 더 싸 주었다.

어느날 태환이의 부친 김 박사가 직장에 있는 데 가까운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다.

"안녕하십니까? 김 박사님 가족이 모두 무고하십니까?"

"덕분에 잘 있읍니다." 김 박사님도 기분좋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이 박사가 생각났다는 듯이 소리쳤다. "집안에 요즘 무슨 문제가 없으십니까?"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해 보다가 이상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글쎄요.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있읍니까?"

"김 박사님, 며칠 전에 태환이가 길에서 신문파는 것을 보았는데요."

"무엇이라고요? 정말입니까?"

"틀림없읍니다! 박사님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 박사는 그날 오후 내내 사무실에 앉아 왜 태환이가 그런 일을 했을까 하고 이상스럽게 생각했다. 그날 밤 저녁식사를 마치고 난 후, 김 박사는 태환이와 조용히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다. 그는 "태환아, 잠시 이야기할 게 있는데?"

"예, 아버지."

"오늘 이 박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셨는 데, 며칠 전에 네가 길에서 신문파는 것을 보셨다는구나, 사실이냐?"

태환이는 얌전히 대답했다. "예, 아버지, 그렇지만 친구를 도와 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애는 점심도 싸 오지 않아서 내가 도시락을 하나 더 가지고 가 그에게 주었어요. 신문 한장 팔면, 40원을 벌거든요."

"태환아, 왜 그런짓을 했니? 먼저 나한테 의논해 보는 것이 좋지 않았겠니?"

"그렇지만, 아버지, 나는 친구를 도와 줄 때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그 밖에도, 우리 반 친구들 중에서 나보다 불행한 친구들을 도와 주고 싶었어요. 별로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여요. 신학원 중등부에서 배운 것을 실천했을 뿐이어요."

태환이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눅 10 : 27) 하신 구세주의 계명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

고장난 택시를 밀어주던 날

나는 최근에 인도네시아로 여행하여, 쟈바 섬에 있는 선교사와 회원들을 방문한 후에, 이튿 날 아침 일찍 싱가폴행 비행기를 타야 했으므로, 6시에 호텔에서 나왔읍니다. 나는 호텔 입구에 서 있는 택시에 올라 운전 기사에게 국제 공항으로 가자고 말하고 보니, 택시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읍니다. 밧테리가 다 소모된 것이 분명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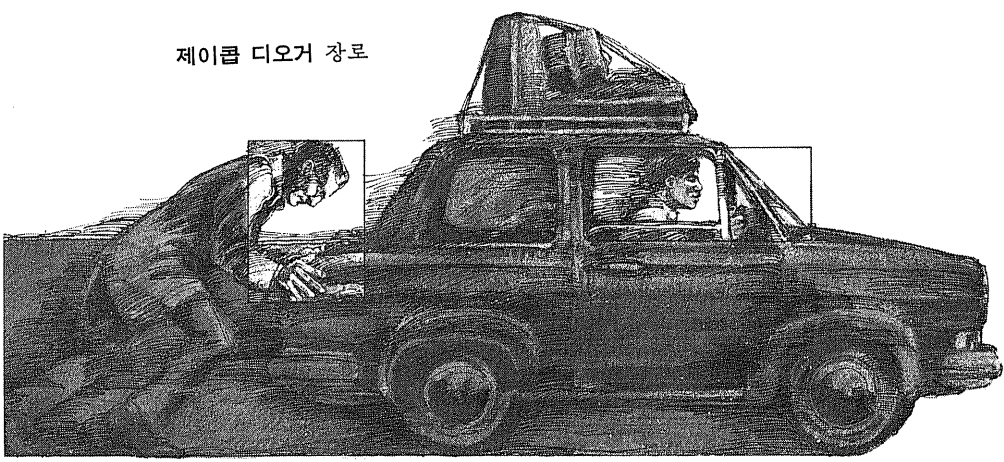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그 택시에서 짐을 다 내리고 다른 택시를 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읍니다. 또한 그 택시 운전사는 그 수입으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해 가는 것 같았으며, 비행장까지 한 시간 반 가량되는 장거리 손님을 놓치면 크게 실망할 것 같았읍니다.

나는 아침 운동 삼아 택시를 밀어 주기로 결심하고 인도네시아인 운전기사는 운전석에 앉아 차에 시동을 걸게하고 나는 그것을 밀었읍니다. 그는 이른 아침 화란인의 체력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내가 차에 적당한 속력을 내 주기도 전에 차의 클러치를 풀었읍니다. 그 결과 차가 갑자기 서 버렸읍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해보니 이번에는 시동이 걸렸읍니다. 모터가 부릉거리며 차가 앞으로 나갔읍니다. 나는 문을 열고, 차에 뛰어 올라 달려 갔읍니다.

1시간 반 후에 비행기에 오르니, 비행기 문앞에서 맞이하던 스튜어디스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읍니다. 오늘 아침 보우로우부두어 호텔 앞에서 택시를 밀어주신 신사분이시지요."

제이콥 디오거 장로



그렇게 말한다음 그녀는 호텔 옆문에 세워둔 공항 리무진차에서 다른 모든 승무원들과 함께 그 광경을 보았다고 말했읍니다. 그녀는 그들은 비행장으로 가는 길에 줄곧 그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했읍니다. "도무지 어떻게 된 연유인가? 보우로 우부두어 호텔에 머물만한 사람이면, 아침 6시에 택시를 미는 일을 해야 할 까닭이 없을텐데."

나는 "이야말로 선교 사업을 할 기회로구나!"하고 생각했읍니다. 나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 주면서 말했읍니다. "우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훌륭한 인간 관계를 믿습니다."

스튜어디스는 자기는 정식 스튜어디스가 아니고, 시 피 에이 항공사의 승무원 교사로, 자신이 홍콩에 있는 승무원 훈련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을 실습시키기 위해 이 비행기에 탓노라고 말했읍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다른 면에서 교회를 소개할 수 있었읍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육 기관입니다. 매주 최소한 200여 만명의 사람들이 영감에 가득한 공과를 가르치고 있읍니다." 나는 또한 동남아의 아홉 개 선교지역에서 교회 회원들과 선교사들을 가르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읍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직원들에게 친절한 봉사에 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여행자를 찾고 있는 중인데, 선생님이 바로 적임자이실 것 같군요." 나는 그녀에게 그들이 다음 번 홍콩에서 새로운 강의를 시작할 때 교회의 기타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날짜만 정해 준다면 기꺼이 무료로 강의를 맡아 주겠노라고 했읍니다.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몰몬이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구나!"

홍콩으로 돌아 온 나는 승무원 훈련 교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항공사의 교육 책임자에게서 연락을 받았읍니다. 나는 약속을 하고 그의 사무실에서 여러 시간 동안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읍니다. 그는 교회의 업무와 성취에 큰 감명을 받았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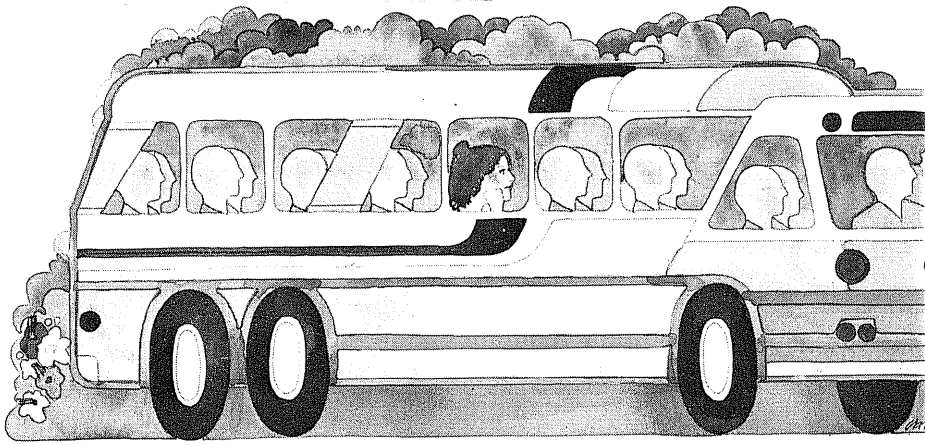
나는 어느 이른 아침에 인도네시아의 쟈카르타에서 행한 단순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알게되었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접할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선교 사업을 행할 기회를 갖고 있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읍니다. 문제는 그런 기회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찾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함으로,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있는 자들이 많음이라."(교성 123 : 12)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해야 하겠읍니다.

선교 사업은 공식적으로 부름받은 선교사들만이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도록 합시다. 어디서나 이웃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복음은 참되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하여 회복되었읍니다. 우리 다함께 이 영화로운 메시지를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나누도록 합시다. ✻



버스 정거장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길게 줄지어 섰다. 우리 차례가 되어 버스를 탔다. 빈 좌석이 두개 있는 것을 보고, 남편과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유타주 시더 시에서 솔트레이크시티까지 타고 왔던 때처럼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두 사람은 동생이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그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기뻤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좌석을 향해 가는데, 우리 앞에 있던 부인이 내가 선택한 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여행자들을 헤치고 들어가, 남편은 뒷줄 창가에 있는 자리에 앉았다. 잠시나마 대학의 밀린 과제에서 벗어난 느낌을 받은 그는 책을 꺼내 무릎에 펴고, 될 수 있는대로 편안한 자세를 취했다. 한편, 그 뒷 좌석에 자리잡은 나는 주위를 살펴 보았다.

우리 앞에는 두 명의 어린 소녀들이 있었고, 건너 편에는 어린 남동생과 엄마가 있었다.

"몰몬 가족인가보다."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고향인 네바다 주의 리노시를 떠나 온 이후로, 유타주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말일성도이거나 아니면 교회를 잘 알고 있으려니 하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지난 번 스테이크 대회에서 나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그 때의 주제는 선교 사업이었다. 한 연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유타로 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연사는 그 지역에 사는 비회원들은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교회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지적했다.

내 남동생은 스위스에서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떠나는 데, 그곳은 전부터 나도 선교 사업을 해 보았으면 하고 생각했던 곳이다. 그러나 대회 말씀을 듣고 보니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전해야 할 개인적인 책임이 있음을 잘 알게 되었다. 나는 이번 여행길을 떠날 때 몰몬경을 가져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 충동을 무시해 버렸다. 버스는 힘차게 앞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나는 자세를 조금 고쳐 앉으며, 저쪽 편 창가를 바라보았다. 두 남매가 서로 창가에 앉겠다고 다투고 있었다. 그들의 뒷 좌석에서 두 개의 좌석에 비스듬히 앉은 그들의 어머니는 잠을 청하고 있었다.

"지루한 여행이 되겠는 걸." 나는 혼

낯선 사람뿐인 버스안에서

엘리스 리친스

자 중얼거리며 잡지를 꺼내 들었다. 잡지를 펴서 여행을 하는 곳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사람과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 나갔다. 우정이란 곧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양심에 가책을 받았다. 모르기는 해도 버스에 탄 대부분의 사람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친해지기를 원하면서도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지 못하는 것일 게다. 내가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지난 주일 상호부조회 공과 시간에 우정에 대하여 배웠던 단편적인 지식들을 기억해냈다.

버스에 모르는 사람들 뿐이어서 두렵기는 했지만, 나는 여러 해 동안 아이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저쪽에서 툭탁거리고 노는 두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 나는 가방에서 뜨개실을 찾아 그것을 잘라 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굽히고 소년에게 접근했다. 나는 그에게 손가락으로 실뜨기 놀이를 할 줄 아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는 막연히 안다고 하면서도, 지루한데서 구제된 것을 기뻐하여, 우리는 이내 실뜨기 놀이에 열중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우리는 형태를 이리 저리 바꾸게 되었고, 그 때 나는 복잡한 실뜨기 놀이의 일부만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앞에 있던 소녀가 몸을 돌려 자청해서 도와 주었고, 옆에 앉았던 자매도 합세했다. 소년의 누이도 처음에는 관심없는 척 하더니 역시 흥미를 나타내며 바라 보았다.

우리는 곧 서로를 소개했다. 쟈넷(그녀가 말일성도라는 것은 후에 알았다.)은 존(비회원이었다.)이 다른 실뜨기 놀이하는 것을 도와 주었으므로, 나는 실을 더 잘라 돌려 주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지내, 낯선 사람이 아니라 곧 친구가 되었다. 존은 자기 누이 에이프릴과 함께 라스베가스에서 뉴욕까지 친척을 방문하러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실뜨기 놀이에 싫증이 나자 우리는 새로운 오락으로 "동물 알아맞추기" 게임을 하였다. 내가 먼저 시작하였다. 내가 어떤 동물을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여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수잔이 바로 맞추었으므로, 다음 차례가 되었다. 우리는 그녀가 캉가루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는 자기 오빠가 호주로 가는 선교사 부름을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그 동물을 택했노라고 말했다.

"수잔도 나와 같은 일을 하려는 생각이로구나!"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어느 새에 같은 편이 생겨, 내가 시작하기도 전에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우정을 나누고자 하는 선교사의 마음을 지닌 또 한 사람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녀는 내가 비회원인줄로 생각하고 내게 복음에 관해 흥미를 갖

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나의 남동생도 곧 선교사로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은 선교사가 무엇인지 몰랐으나, 자기가 동물이 될 차례라는 것을 알았다. 게임은 계속되었다.

"좋은 기회가 지나갔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다섯 시간이나 걸리는 여행길이니 다른 기회가 또 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먼저 좀더 친해져야겠지." 하고 나는 생각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우리가 너무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므로 버스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앞에 앉았던 한 남자가 돌아서서 알아맞추기 게임에 귀를 기울이며, 뒤에서 놀이에 열중하고 있는 우리를 즐거운듯이 바라보았다.

세 명의 비회원인 존과 에이프릴과 그들의 어머니는 진심으로 게임을 즐기는 듯했다. 두 어린이는 알아맞추기 힘든 새로운 동물을 선택해 보려 애쓰고, 그들의 어머니는 가끔 좌석을 넘겨다보며 미소지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 놀이를 하였으며, 쟈넷과 수잔의 어린 동생 랄프도 재미있는 말을 해 모두 웃었다.

다시 에이프릴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코알라 곰이었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오스트랄리아에 대하여 말했다. "복음에 대하여 말할 기회가 또 오는구나." 나의 마음이 속삭여 주었다. 모두 다 게임에 싫증이 나게 되었을 때, 적절한 시기가 된 것 같았다. "자, 수잔, 이야기를 시작해야지,"하고 나는 속으로 말했다. 앞서도 그녀가 그런 기미를 보였으니, 이번에는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차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데, 어떡하지!" 말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생각이 내키지 않았다. 그러다가 또 생각이 달라졌다. "얼마나 좋은 기회냐. 내가 말을 꺼내면 수잔도 나를 도와 줄 것이고, 더구나 귀환 선교사인 남편이 일어나서 훌륭한 설교를 하면, 버스안에 있는 모든 분이 집으로 돌아가면 앞다투어 선교사와 토론을 하러 갈텐데."

나는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다. 존과 에이프릴은 뉴욕주로 갈 것이므로, 그들에게 구모라 언덕에 가본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했다. "여보, 당신이 좀 말해 주어요." 하고 나는 속으로 생각하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조금도 도와 줄 기미가 안 보였다. 그는 여전히 소설책을 읽고 있었다. 수잔 역시 조용히 있었다. 나 혼자 해내야 할 모양이었다.

나는 모로나이와 요셉 스미스에 관해서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나는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합본을 보여 주고, 몰몬경 제목을 읽어 보라고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몰몬이 누구라는 것을 말해주고, "몰몬교인"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에 관하여 대강 이야기했다. 그런 뒤에 나는 그들에게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쉬웠으며, 내가 가르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다. 버스안에 탔던 다른 사람들, 특히 존과 에이프릴의 어머니가 귀를 기울였다. 내가 말을 끝내자, 존은 "우리가 그것이 참된 줄을 어떻게 알지요?" 나는 요셉 스미스가 했던 것과 같은 방법, 곧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 주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찼다. 우리는 그런 다음에 기도에 대하여 간단히 토론했다. 내가 남편을 쳐다보니 그는 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도 이제까지 내가 해온 것을 알아 차렸던 것이다.

모든 것이 너무 쉽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우리가 탄 차가 프로보시를 지나갈 때, 구도자들에게 신전을 보여 주었고, 수잔은 그들에게 솔트레이크시에 도착하면, 솔트레이크 신전과 모로나이상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남편과 나는 한 정류장 앞에서 내려야 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몹시 들떠있었다.

우리는 프로보 정류장에서 10분간 휴식했다. 나는 재빨리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선교용으로 몰몬경 한 권이 필요합니다. 나는 양해를 구하고 버스에서 급히 내려 대합실에서 책을 사고자 했다. 그런데 책 판매대가 없었다. 그러나 매표원 책상에 있는 우편함에, 낡기는 했지만, 내가 집에 두고 온 것과 같은 푸른 색 표지로 된 몰몬경을 누가 놓아 두고 간 듯 했다. 나는 매표대에 있는 사람에게 그 책을 팔라고 사정했더니, 그는 그 책을 나에게 주었다. 그는 이상하다는 듯이 내가 버스에 다시 올라 타는 것을 바라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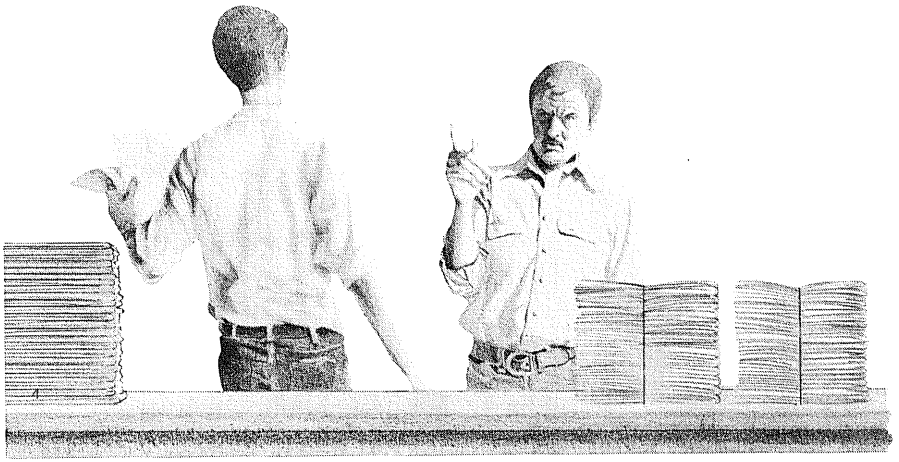
나는 그 귀한 책 안에 새로운 친구에게 주는 짧은 메시지를 썼다. 그런 뒤에 쟈넷과 수잔과 내가 차례로 이름과 주소를 썼다. 다섯살 난 랄프도 커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역시 이름을 쓰겠다고 했다. 소녀들은 우리가 준 선물에 내 지갑에 들어있던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가방에 싸 넣었다.

우리는 재빨리 눈치채지 않게 해 보려 했으나, 휴식 시간이 다 끝나서야 겨우 시작하는 셈이 되었으며, 존과 에이프릴도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버스로 되돌아 왔다. 그들은 이내 호기심을 보였으며, 나는 그 소녀들에게 누구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에 실망을 하며 자리로 되돌아 갔다. 나는 그들과 잠시 이야기를 하며, 포장을 장식하기 위해 그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물어 보았다.

소녀들은 구도자들과 우정을 나누는데 사용한 같은 실로 꾸러미를 묶었다. 우리는 한 가족에게 그 선물을 주었다. 존과 에이프릴은 금방 얼굴에 기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들의 어머니도 큰 감명을 받은 것 같았다. 그들은 금판에서 나온 기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가 정류장에 닿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지루한 여행"이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 마음속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따스한 느낌을 얻기에 너무도 짧게 느껴졌다. 나는 기분이 좋았고 내 어린 친구들도 역시 그러했다. 우리는 우리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는 이제 섭섭하기는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해야 했다.

남편과 나는 버스가 떠나자 그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나는 존과 에이프릴과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흰 옷을 입고 침례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머리속에 그려볼 수 있었다. 나는 언젠가는 그들이 교회 회원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버스안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다음 번에는 떠나기 전에 꼭 몰몬경을 싸 가지고 가야겠다. ✻



계명을 지키는 일

진 알 룩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청년 시절에 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중요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은 적이 많았다. 예를 들자면, 내가 돈을 별로 벌지 못하는데도 주님이 나의 하찮은 십일조를 참으로 필요로 하실 것인가 하고 의문을 품기도 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하고 자문해 보기도 했다. 물론, 한참 뒤에야 나는 주께서 내게 순종하고 십일조를 바치라고 하신 것은 내가 이 율법에 따름으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받게 하시고자 함을 알게 되었다.

11세 때에 나는 처음으로 신문 배달하는 일을 하려고 했다. 나는 막 11세가 되었으므로, 신문 배달 소년이 될 수 있는 최소 연령인 12세에 1년이 모자랐다. 담당자에게 어린 소년도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음을 확신시켜 주기가 처음에는 힘들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도움으로 담당자에게서 허락을 받았다. 주님은 참으로 어린 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나는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

이 중요한 일을 하며 나는 돈을 모으고 계산하는 방법, 여러 유형의 사람을 대하는 방법, 신문 파는 방법 등을 배웠다. 나는 항상 수입의 십분지 일은 십일조로 기꺼이 주님께 바쳤다.

5년간 신문 배달을 하고 16세가 되자, 놀랍게도 판매 지배인이 나에게 부지배인이 되어 그 시내의 모든 신문 배달 소년을 감독해 달라고 했다. 그처럼 어린 나이로는 명예스러운 일이었으며, 나는 참으로 주님께 감사했다. 나는 주님께서 내가 성장하며 더욱 발전하도록 축복해 주신 것임을 알았다.

나는 2년간 부지배인으로 일했다. 그 후에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문제를 겪었다. 나는 그 당시 십일조를 정기적으로 내고 있었고 그 원리를 확실히 믿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체험해

보기 까지는 그 원리를 확실히 증거할 수는 없었다.

일을 끝낸 어느 토요일 오후에 지배인이 나에게 다음날인 일요일부터는 일요일 오전에도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지배인은 당시 교회의 비활동 회원이었으며, 내가 그 제안에 쾌히 응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내가 신권회와 주일학교에는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모임에는 나갈 수 있으니, 과히 심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다. 내게 급료를 올려 주면 일요일에 일하는 원리에 대하여 종래의 생각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지배인은 급료를 30퍼센트 높여 주겠다고 했다.

그 말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나는 "안식일에 일을 할 수는 없읍니다." 라고 또렷이 대답한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일요일에 일을 하지 못하겠다면 다른 부지배인을 구해야 겠는데" 그가 말했다.

나는 그날 슬픈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왔다. 그때 왜 내가 교회로 인해 직장을 잃어야 하는지 주님에게 물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할 수 있다. 나는 열심히 일하여 선교 사업을 위한 돈을 저축하였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겠다해서 직장을 잃게 된 것이었다.

내가 아버지께 그 문제로 의논을 드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결과가 어떻게 되던지 나는 네가 옳은 일을 행하리라고 확신한다." 결정은 내가 내려야만 했다. 주님께 간구하는 길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토요일에 나는 지배인에게 가서 일요일에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정히 그렇게 결정을 내린다면, 앞으로 일주일간만 부지배인으로 일하고, 그 후에는 시키는대로 열심히 일할 청년을 고용하겠다고 했다.

나는 5~6일 후에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구나 생각하며 우울한 마음으로 퇴근하였다. 1년 후에는 선교사업을 나가야 하는 데 아직 충분한 기금이 마련되지 않았다. 나는 그 한 주 동안 많이 기도를 드렸다.

그 다음부터는 일하는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고, 지배인과는 별로 말을 나누지 않았다. 마지막 날인 토요일을 기다렸다.

마침내 금요일이 되었다. 저녁에 일을 끝내자 지배인이 내게 다가와 감동적인 어조로 말했다. "지니군, 자네가 옳았네. 일요일에 일을 해 달라고 한 내가 잘못이었어. 다른 교회에 다니는 젊은이로 일요일에 일을 하겠다는 젊은이를 찾았지만, 자네가 계속 부지배인으로 일해 주는 것이 좋겠네. 자네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급료는 30퍼센트 올려 주겠네. 자네가 아주 훌륭한 청년이네."

그 순간 나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느꼈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달에 더 많은 십일조를 내고, 안식일에 맡은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며 느낀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주님께서는 한 젊은이에게도 하늘의 축복을 부어 주시며 자신이 버는 수입에 대한 십일조를 내는 일의 가치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가치 있는 것이다. ✻

말일의
예언자들의 말씀

해롤드 비 리 대관장

("**계시와 여러분**"에 대한 소개) :

교회의 제11대 대관장인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은 1899년 3월 28일에 아이다호주 클리프톤에서 새뮤얼 매리온 리와 루이저 에밀린 빙엄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1941년 4월 10일에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에 의해서 사도로 성임되었으며, 1970년 1월 23일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지지받았다. 또한 1970년 1월 23일 70세 때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의 제 1 보좌가 되었다. 리 대관장은 1972년 7월 7일 73세 때 교회 대관장으로 지지 받았다. 그는

1973년 12월 26일에 74세를 일기로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세상을 떠났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의 말씀과 저서 인용문 "너희는 거룩한 곳에 설지어다." 132~145페이지에서 인용함.
말일의 예언자들의 말씀
계시와 여러분)

해롤드 비 리 대관장

십이사도 평의회의 존 에이 윗소 장로가 스테이크 역원들과 토론했던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읍니다. 토론하는 중에 누군가가 "윗소 형제님, 교회가 계시를 받은 지 얼마나 되었읍니까?"라고 물었읍니다. 윗소 형제는 턱을 문지르면서 생각에 잠겼다가 "아마 지난 목요일일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읍니다. 틀림없이 윗소 장로는 매달 첫번째 목요일에 열리는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모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종종 반복되어 있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찌어다" (마 11 : 15)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모두 듣도록 모든 사람이 축복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못박히기 조금 전에 성전에 계실 때 무리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크게 퍼졌기 때문에 그를 보고 싶어 온 헬라인들이 섞여 있었읍니다. 구세주께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요 12 : 28)는 응답이 왔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천둥이 울렸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읍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읍니다. 여러분은 그때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나 듣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개심할 때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할 공문을 갖고 그곳으로 가고 있었읍니다. 그에게 밝은 빛이 나타나 그의 눈을 멀게 하였으며 하늘에서 한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행 9 : 4)고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건에 관하여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행 22 : 9)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들을 귀는 갖고 있었으나 아무것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영원한 세계에서 오는 메시지를 이행할 수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나 우리 각자가 전심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방법대로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어날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오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수년 전에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할 때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읍니다. 우리는 고등 평의원들과 스테이크 부장단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참혹한 일을 재판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 사랑스런 젊은 여인에게 해를 끼친 어느 가정의 가장을 파문해야 했던 사건이었읍니다. 거의 하룻밤을 새우면서 진행된 회의에서 그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지친 몸을

이끌고 나의 사무실로 갔을 때, 나는 사무실 앞에서 어제 밤에 재판을 받은 그 사람의 형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 사람은 '나는 내 동생에겐 그런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러 왔읍니다.'라고 말했읍니다.

"그 동생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라고 내가 물었읍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동생에게 죄가 없다고 응답해 주었읍니다."라고 그 사람이 대답했읍니다.

나는 그를 사무실로 들어오게 하여 함께 앉았읍니다. "제가 몇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좋겠읍니까?"라고 물으니, 그는 "물론 좋습니다."라고 대답했읍니다.

"실례지만 올해 몇 이십니까?"

"마흔 일곱입니다."

"무슨 신권을 갖고 계시죠?" 그는 교사인 것 같다고 대답을 했읍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있읍니까?"라는 질문에 "안지킵니다"라고 대답했읍니다. 그가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은 분명했읍니다.

"십일조를 내십니까?"

그는 "안바칩니다."라고 대답을 하고는 그 구두쇠가 32와드의 감독을 하는 한 바치지 않겠다고 말했읍니다.

"신권회에 참석하십니까?"라고 묻자 "아니올시다."라고 대답하고는 역시 그 사람이 감독을 하는 한은 신권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읍니다. "그럼 성찬식에도 나가시지 않죠?"

"네, 안나갑니다."

"가족 기도는 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그는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읍니다.

"경전 공부는 하십니까?"라고 묻자 그는 "글쎄요, 눈이 나빠서 잘 읽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였읍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우리 집에는 좋은 라디오가 있읍니다. 모든 동작 상태가 좋을 때에는 다이알을 돌려서, 국내외의 여러 곳에서 방송되는 연사의 목소리나 가수의 노래를 마치 안방에서 이야기하거나 노래하듯이 들을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것을 사용하였더니 그 속에 있는 부품 즉 라디오 진공관이라고 부르는 전기장치가 노후하여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했읍니다. 그들 중의 하나가 낡아지니까 잡음이 생겼읍니다. 이어서 다른 한 개가 낡아졌는데,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더니 그 부품마저 나빠졌읍니다. 이렇게 하여 계속 주의를 기울이지 않자 또 다른 것이 낡아지고 말았읍니다.…그런데 라디오의 바깥 모양은 처음의 상태와 다를 바가 없었읍니다. 단지 그 내부에서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읍니다. 결국 가수의 노래나, 연사의 말을 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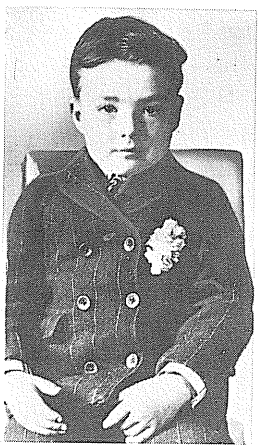
나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형제님이나 저의 영혼 속에는 라디오 진공관과 같은 것이 있읍니다. 우리는 그걸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즉 '성찬식 참석' 진공관, '가족 기도 갖기' 진공관, '경전 읽기' 진공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주되는 진공관이라고 부르는 '자신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지키기' 진공관이 있읍니다. 만일 이들 중 하나를 사용치 않거나 그것이 비활동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상태가 좋을 때에는

멀리서도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라디오의 내부 부품이 낡아져서 그 기능을 잃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테이크에 사는 의로운 사람 열 다섯 명이 지난 밤에 기도를 했읍니다. 그들은 증거를 들었으며, 모든 사람이 형제님의 동생에게 죄가 있다고 말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기도를 하여 그들과 어긋나는 답을 얻었다고 했읍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읍니까?"라고 내가 말했읍니다.

이 사람은 내 생각이 옳다고 하고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리 부장님 나는 내 대답이 그릇된 근원으로부터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위대한 하나의 진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는 권능의 근원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악마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그 악마로부터 응답을 받

나는 어렸을 때 받은 단순한 간증으로 시작된 신앙심을 갖고 있읍니다...
그때 나는 어린이로서 내가 볼 수 없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는 데, 이는 내가 분명히 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5세 때의 **해롤드 비 리** 대관장

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의 영감에 찬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계시를 분석하였읍니다. 그는 처음에 신의 출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나 그 아들 또는 두 분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하셨읍니다. 모세는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씀하셨으며, 다니엘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읍니다. 여러분은 구세주께서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 : 17)고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린 바울의 개심 때에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고, 음성이 들렸읍니다. 베드로, 야

고보, 요한이 구세주와 함께 높은 산에 가서 변형될 때 그들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으며,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마 17 : 5)는 음성이 들렸읍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 일어난 하나님의 나타나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숲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나타나신 일일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나타나셨는데, 그 중의 하나는 교리와 성약 110편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때에는 구세주께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셨읍니다.

나는 어렸을 때 받은 단순한 간증으로 시작된 신앙심을 갖고 있읍니다. 나는 집에서 떨어진 농장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며, 아버지가 집에 돌아갈 준비를 갖출 때까지 할 일을 찾고 있었읍니다. 우리가 있던 곳으로부터 울타리 너머에 호기심 많은 어린이의 마음을 끌만한 낡은 헛간이 있었으며 나는 모험을 좋아했읍니다. 나는 울타리를 지나 기어오르기 시작하였으며, 그때 내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올라가지 말아라" 하는 음성을 들었읍니다.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가 하고 아버지 쪽을 보았으나, 그는 벌판의 저쪽 끝에 계셨읍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읍니다. 그때 나는 어린이로서 내가 볼 수 없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는데, 이는 내가 분명히 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시를 받는 또 하나의 방법은 예언자 이노스가 말한 방법입니다. 그가 올라가 기록 사업을 이끌어 가야 할 위대한 사명을 받은 후에 그는 이 중요한 말씀을 몰몬경의 그의 기록에 넣었읍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울부짖고 있을 때에, 보라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다시 임하시어 이르시기를" (이노 10절).

환언하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이 들릴 때 마치 주님이 우리의 귀에 나팔을 부는 것같이 강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나는 이 사실에 대해 겸손히 간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인 때가 있었읍니다. 주님은 내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읍니다. 나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었읍니다. 나는 바로 누가 나를 깨워 어떤 것을 바로 가르쳐 주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깨어났읍니다. 나는 내가 받은 느낌과는 정반대로 일을 진행시켜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는데, 분명히 어떤 사람이 침대 곁에 앉아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같이 자세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었읍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성신의 권세에 의하여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읍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초기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참으로 그러하도다. 보라,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 보라 이것이 계시의 영이니"(교성 8 : 2—3)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누구든지 성신을 받아야만 계시를 받을 수 있읍니다. 성신은 계시자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6부, 부제목 64, 328페이지)

나는 이 말을 약간 바꾸어서 말일성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는 침례

를 받고 나서 성신을 받으라고 명하는 의식 집행자로부터 안수를 받았으나 성신의 영의 계시를 받지 못한 모든 말일성도는 아직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성신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읍니다. 계시에 관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겠읍니다.

"사람은 계시의 영이 주는 첫 암시를 놓치지 않음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순수한 영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갑자기 많은 생각을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 영감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날이나 얼마 후에 일이 성취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일깨워 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때까지 계시의 원리안에서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부 151페이지)

여러분은 어떤 일에 관하여 계시를 받을 수 있겠읍니까? 성신을 받은 교회 회원들은 모두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놀라시겠읍니까? 교회 대관장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와드, 스테이크, 선교부에 관계되는 일을 어떻게 돌보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책임 분야에서 성신을 통하여 계시를 받을 권리가 있읍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을 관리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사업을 관리하는 일 등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이 은사와 특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읍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올바른 일을 하고 현명하며 신중하게 되고 공정하고 선하게 되기 위하여 계시의 영과 영감의 영을 향유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입니다. 나는 이것이 참된 원리라는 것을 알며 모든 말일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자신에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일 여기에 순종하고 이런 속삭임을 들을 능력을 개발하고 여기에 순종하면 우리도 모두 계시의 영을 받는 일에서 발전할 수 있읍니다.

계시가 올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그것은 꿈에 의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모두 주님으로부터 온 직접적인 계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꿈을 무시하고 꿈에는 아무 목적도 없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또한 모든 경전을 통틀어 보면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꿈으로 인도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이것에 관하여 팔리 피 프랫 장로가 어떻게 말했는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와 모든 경륜의 시대에 인간에게 꿈에 의해서 매우 중요한 지시와 경고 사항을 계시하셨읍니다. 의식과 육체적인 감각이 활동하지 않으면 신경 계통이 휴식하고 잠자는 바로 그 시각은 영적인 감각이 어느 정도 기능을 수행하여 희미한 어떤 윤곽과 하늘 세계에 관한 혼란하고 불분명한 기억과 첫째 지체의 그리운 광경을 회상할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그들의 친척이 되는 영들이 가장 깊은 애정과 가장

진실한 관심을 갖고 그들 주위를 배회합니다. 상호간의 순수하고 영원한 사랑의 큰 기쁨 가운데 영과 영이 대화를 나누고 사상과 사상이 만나며 영혼과 영혼이 섞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적인 기관이(또한 우리가 자신의 영을 볼 수 있다면 영에 보는 눈과 듣는 귀와 말하는 영에 보는 눈과 듣는 귀와 말하는 혀 등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천사들과 대화하며 인간의 영이 완전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오는 느낌의 가능성을 무시할 만큼 불순하지 않게 되면 우리도 계시로써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을 측정하는 표준이며, 어떤 것이든지 그 계시에 어긋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읍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앉아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대관장단과 십이사도의 주례 모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거기에 관하여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느낌에 의한 결론에 도달하여 그 결정이 내려진 후에 그 느낌이야말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보낸 지시라는 것이 판명되는 것을 보아 왔읍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교회 대관장이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읍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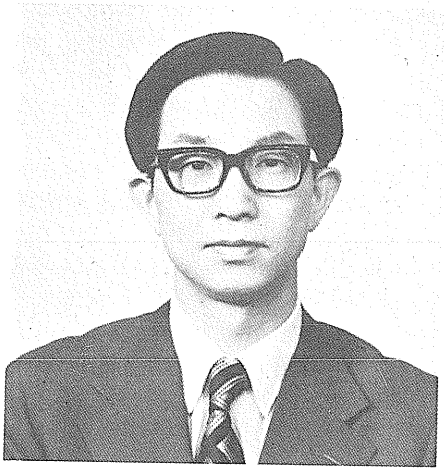
우리가 모두 열심히 노력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곧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도록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살면 주님은 직접 나타나시거나 실제의 음성으로써 또는 우리 마음속에 그의 음성이 들리거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느낌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만일 주님이 영원한 세계의 아름다움이나 우리의 특별한 위안을 위한 경고나 지시 사항을 계시하는 꿈을 우리로 하여금 꾸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하겠읍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음성과 계시의 권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지식을 받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겸손하게 간증드립니다.

어떤 대회가 있고 일주일이 되었을 때의 일인데, 구세주의 생애에 관하여 라디오에서 연설할 것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의 생애와 십자가에 못박힘과 부활을 읽었을 때 나는 그분의 실재성에 관한 간증을 갖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단지 기록된 것 이상의 것이었읍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나는 마치 직접 그곳에 있었던 것만큼 확신을 갖고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것을 알았읍니다. 나는 이런 것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온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나는 오늘날 이 교회가 계시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다는 엄숙한 간증을 드립니다. 성신을 받도록 축복받은 모든 사람은 계시를 받을 권세가 있읍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충실한 기도에 응답할 수 있게 언제나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1952년 10월 15일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행한 연설



선한 영향력

이 호 남
부산 선교부장

형제, 자매 여러분, 새 아침이 시작되는 이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 뵈올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1980년엔 이 나라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더욱 속히 발전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날에 실천적인 신앙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31절을 보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읽을 수 있읍니다. 세상의 좋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부자와 부자의 대문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던, 나사로라는 거지의 이야기 입니다. 거지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부자는 죽어 어두운 곳에서 고통을 받았읍니다. 부자는 고통간에 "저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누가 16:24) 했읍니다. 아브라함은 "애,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를 기억하라"(누가 16:25)했읍니다. 부자는 자신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이젠 세상에 사는 가족들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이 고통을 받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하소서"(누가 16:27)하였읍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찌니라"(누가 16:29)하였읍니다. 부자는 다시 간절히 "만일 죽은 자가 저희에게 가면 회개하리이다"(누가 16:30)고 했읍니다. 이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누가 16:31)라고 기록 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읍니까?

첫째, 우리는 선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 영혼은 그토론 귀중한 것입니다.(교성 18:10) 킴볼 대관장님께서는 "우리는 우리의 영향력을 우리의 가족과 자녀, 친구와 이웃에게 미치게 하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이 해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계획을 세웁시다.

둘째, 우리는 영적인 생활의 필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읍니다.

이 세상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만들어져 있읍니다. 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적인 원리의 지배를 받고 있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교성 88:119)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을 바라고 추구 합시다.

셋째, 우리는 복음을 가능한 한 현세에서 받아들여야하고, 사망 후로 미루지 말아야 함을 배울 수 있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젊은이들은 자주 "복음은 내겐 필요없어! 나이가 들어서나 가져볼까!"라고 하곤 합니다. 가치관에 대한 편의 주의는 온 세상에 내재하고 있읍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 데, 우리는 지금 받아 들이고 변화 되어야 하며, 오늘 이 복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주님은 인간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내적인 것을 보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마태 25:26)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마태 25:29) 하셨읍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며,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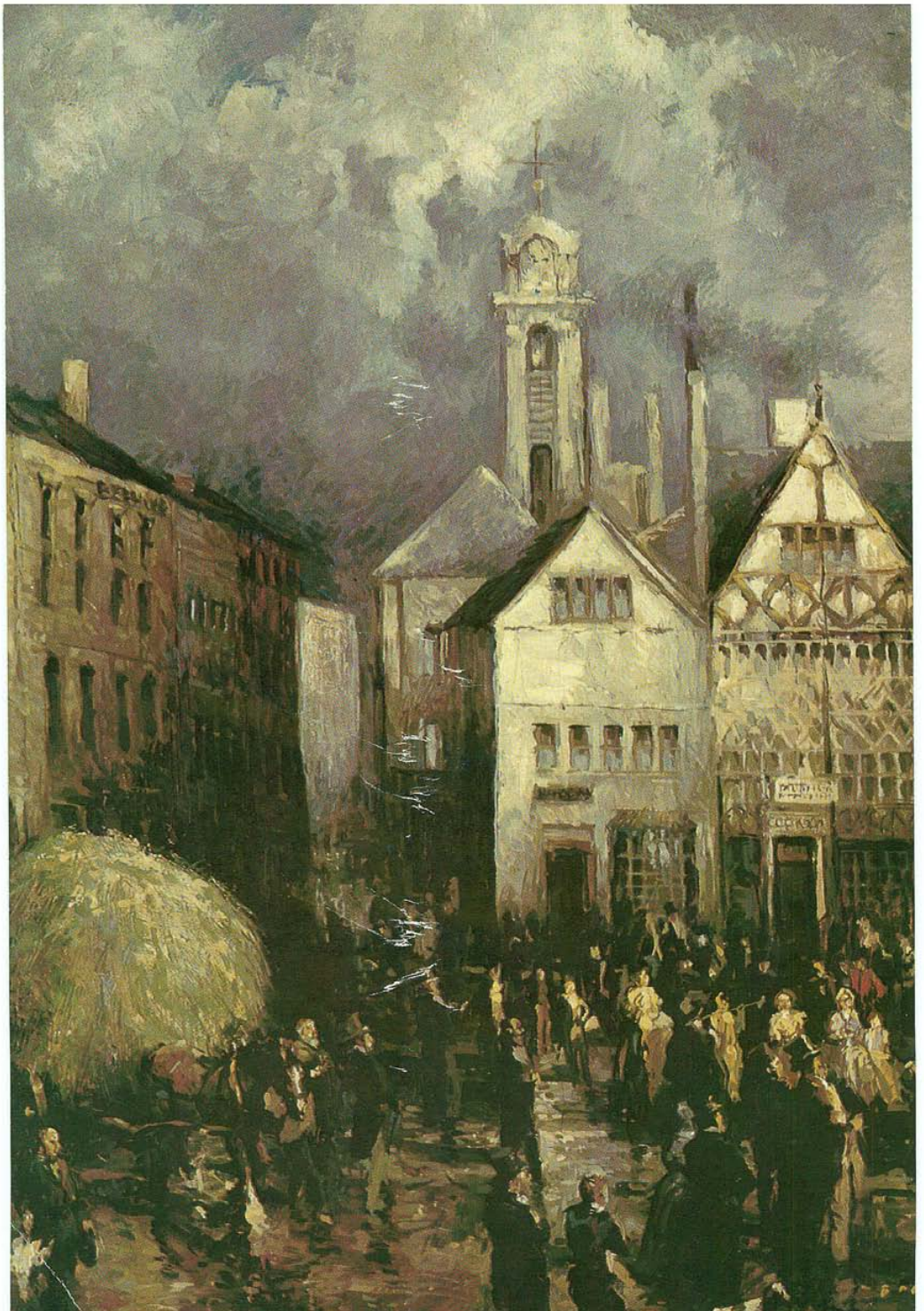
명예, 권력, 재력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감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요. 하나님께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다섯째,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임을 배울 수 있읍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이 세상의 물질로서 만족하게 해 드릴 수도 있읍니다. 하지만, 이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가치를 부여하지 못한다면, 나에게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섯째, 선교 사업은 최고의 특권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인 것임을 배웁니다.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의 성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전 선임사도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요 21:15) 하셨읍니다. 우리의 주위엔 세상적으론 부하고, 가진 것이 많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갈급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읍니다.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의 책임은 그들앞에 놓인 세상적이고, 거짓 진리에 쌓인 장벽을 부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나의 왕국에서 받을 너희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교성 18:15) 영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지니는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엔 우리 모두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회원 선교사로서 빛의 자녀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은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며 영향력을 지니고 있읍니다. 자신의 선교 사업에 대한 목표를 세우시고, 기도하시며, 주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할때, 주님께선 여러분께 화평과 안식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성도 여러분께 1980년엔 영적으로 크신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평안과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받는 축복을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